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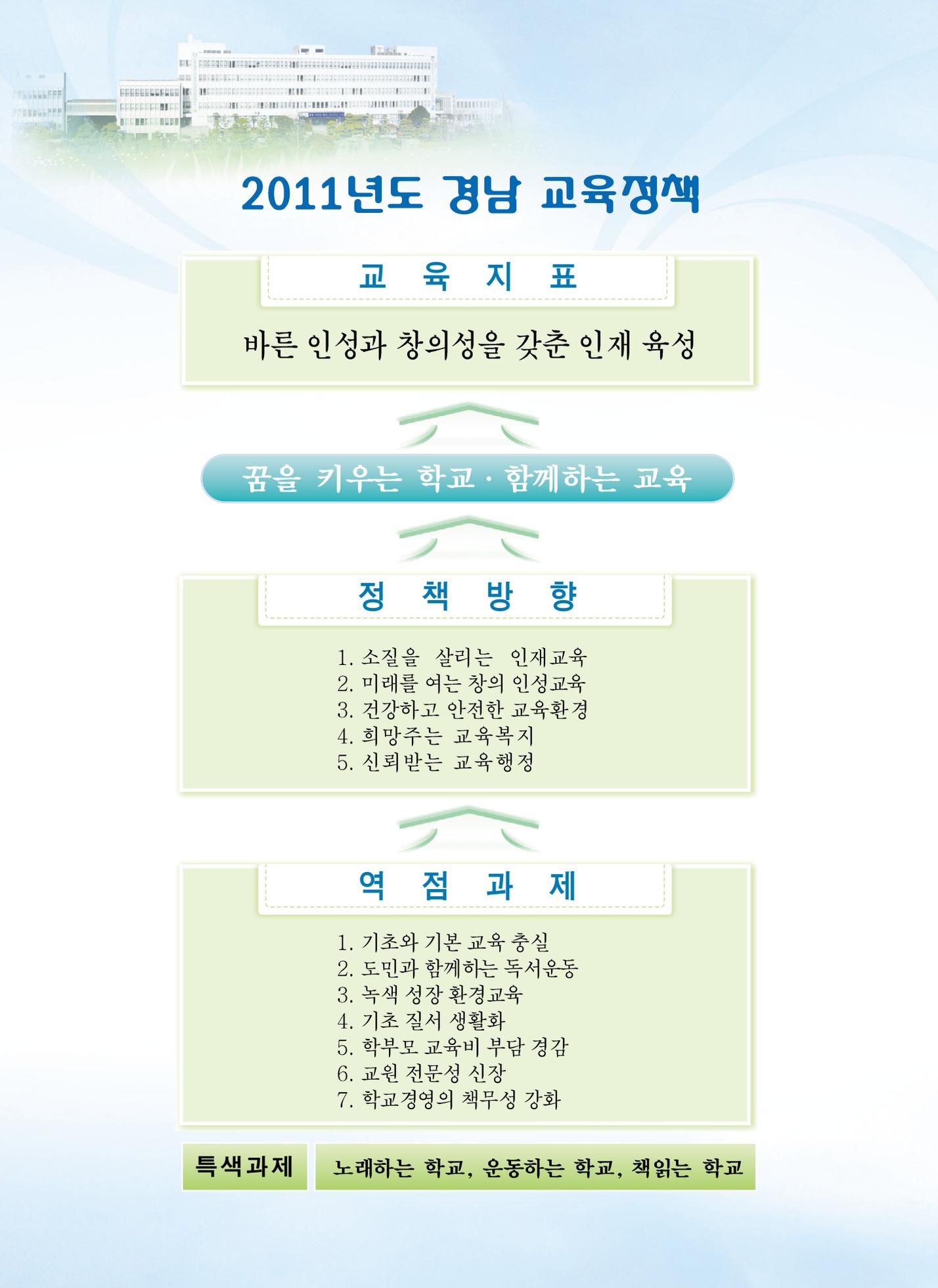
장학월보

2011 제225호(통권444호) **11**

■ 장학특집 / 주5일수업제

■ 교육정보 / 차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





2011년도 경남 교육정책

교육 지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

꿈을 키우는 학교 · 함께하는 교육

정책 방향

1.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2. 미래를 여는 창의 인성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4. 희망주는 교육복지
5. 신뢰받는 교육행정

역점 과제

1. 기초와 기본 교육 충실
2.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3. 녹색 성장 환경교육
4. 기초 질서 생활화
5.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6. 교원 전문성 신장
7. 학교경영의 책무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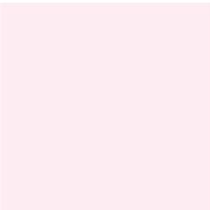
특색과제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임는 학교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11. 11 제225호(통권 444호)



02 권두언
04 교육감 동정
05 장학현장
06 교육 칼럼
08 특집 /
주5일수업제

- 교육기부, 창의적 인재 양성의 길입니다 / 고영진
- 공익을 위한 소통 공무원 노사의 상생·협력 / 최성현
-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에 대한 교육적 이해와 접근 / 이국식
- 주5일수업제 이렇게 준비하고 운영합니다 / 김정희
- 토요일 방과후학교와 토요일 돌봄교실 운영 방안 / 박정민
- 학교예술강사 토요일 프로그램 지원 방안 / 이외숙
-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 정철민
- 토요일에는 보다 넓은 배움터로! / 손보경
- 주5일수업제 운영을 통해 밝고 건강한 심신(心身) 만들기 / 유정선
- 경상남도교육청의 토요일 돌봄교실 운영 / 안수영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토요일 프로그램 / 안지혜
- 도서관에서 행복한 토요일 만들기 / 유소현

30 좋은 수업 다지기

- 문제중심학습(PBL)으로 통합적 학습능력을! / 노형준
- 학습자를 위한 블렌디드 수업설계 안내 / 이동우
- 귀 기울여 함께 하는 수업 / 유강민

38 교육정보

- 차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 정운영
- 디자인 왕국 일본에서 창의성을 배우다 / 구현숙
- 주5일수업제 정착을 위한 창의적 체험 활동 / 함거호

44 명품학교, 명품교육

- 1인 1탐구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D·H·A 인재를 자라나오! / 김태중
- 글로벌 창의인재를 꿈꾸는 사상초 영어영재반 / 이미영
- 자연과 하나 되어 놀며, 꿈꾸며 / 김삼예
- 학교 역사유물관을 통한 명품교육 / 변광기

59 참여마당

- 교 원 - 중국 속의 한민족사 탐방이 남긴것 / 장현재
- 칭찬의 힘 / 서광미
- 학부모 - 우리가족의 행복 찾기 / 추필식
- 학 생 - 한·일 어린이 자연환경학습을 다녀와서 / 김도훈
- 법정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들'을 읽고 / 최복순
- 지구를 지켜라! / 신광수

67 향기나는 서가

69 지상갤러리

▶ 표지사진 - 박재철(함안중앙초등학교)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12월호 모집 기간 : 2011년 11월 15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독자후기 등 • 분량 : A4 1~4매 내외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초등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1년 11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고영진 • 총괄 :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이국식 • 편집주간 : 교육과정과 장학사 박정화
• 편집위원 : 한영자, 박준일, 구현숙, 윤수영, 김민주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교육기부, 창의적 인재 양성의 길입니다

지난 10월 20일 하동화력본부가 경남교육청에 교육기부를 통해 하동 금남고 기숙사 건립비용 20억 원을 지원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부와 자선이 미덕이 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논리가 구조화된 사회에서 서로 돕고 의지해야 한다는 공동체 정신의 가치는 더 빛을 발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6월, 50여 산·학·연 기관과 교육기부 협약 체결 및 선포식을 가짐으로써 시·도 교육청 단위 최초로 교육기부의 출발을 알렸고 10월에는 교과부에서 뽑은 교육기부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육기부(Donation for Education)는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재정기부와 함께 교육자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기부와 장비, 콘텐츠 제공 그리고 학생 동아리, 체험활동 등에 차량이나 보험을 제공하는 활동 지원, 강연과 멘토링, 지식봉사 등으로 할 수 있는 개인 재능 기부도 있습니다.

교육기부는 기부하는 단체나 개인의 소중한 자원과 재능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잠재능력을 키워주는 큰 희망이 되는 일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인프라 교류를 통한 진로와 직업 탐색 교육의 시너지 효과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기부는 가장 소중한 것을 타인에게 대가 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 혹은 기부나 자선은 소유로부터 오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 DC에서 거대한 건물은 대부분 미술관과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들이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한 기부에 의해 세워졌다는 사실에 놀랍고 한편 부럽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기부로 수준 높은 박물관의 낮은 문턱을 쉽게 오가면서 얇은 주머니 속 동전 몇 개로 자랑스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미국이 세계 일등 국가를 지탱하게 하는 힘인지도 모릅니다.

교육기부를 통해 학생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진행하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진로와 직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육기부를 통해 음악학과 재능기부를 받은 어느 여고생의 참여 후기가 교육기부의 필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많은 꿈을 꿀 수 있는 나이이고 처음 시도하는 것이 흥미롭고 신선하다. ‘음향’과 관련된 지식을 교육기부를 통해 배우게 되었다. 교육기부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공유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교육기부의 활성화는 여건상 원하는 교육의 영역에 접근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깨울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의 관심이 요구됩니다. 교육은 묻혀있는 욕을 발견해내는 일입니다.

2011. 11.

경상남도교육감



01-



02-



04-



03-



05-



06-

- 01 경남독서문화축제테이프 컷팅
- 02 고영진 교육감 국정감사 업무보고
- 03 사랑의 동전모이기 성금 전달
- 04 금남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기부협약식
- 05 교육자료전 대통령상 시상식
- 06 경남교육미래재단발기인대회

장학 현장



07



08



10



09



11

- 07 통영교육지원청 - 교육복지박람회
- 08 경남유아체험교육원 - 가족과 함께 하는 축제
- 09 밀양교육지원청 - 학부모학교참여지원사업 2차 컨설팅을 위한 연찬회
- 10 함안교육지원청 - 육상대회
- 11 경남학생교육원 - 스포츠클라이밍

공익을 위한 소통 공무원 노사의 상생·협력



최 상 현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장

2006년 1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합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공무원노조 출범 이전에도 공무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있었으나 결성단위가 기관에 머물고 주된 역할이 하위직공무원의 고충처리에 머무는 한계가 있었다.

공무원노조의 출범은 공무원들의 보수 및 근로조건 개선, 공직사회의 비리척결, 행정투명화, 공공서비스의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단체의 이기주의, 공직사회 내부의 지도감독체제 혼란 등의 역기능 또한 내포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행위 자체가 전사회적 인프라와 관련될 뿐 아니라 일반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라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공무원노사관계의 불안정과 파행은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한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인식 제고, 노사소통을 통한 협력방안 마련, 합리적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공무원 노사관계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은 사회의 안정과 함께 전반적인 노사관계의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공무원 노사관계는 사용자기운을 목표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과 더불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서비스라는 업무의 특성상 노사간의 분쟁으로 행정서비스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정부는 대응 수단을 찾기 어렵고, 분쟁에 따른 비용을 노사당사자가 아닌 일반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근무조건 결정은 노사협의 결과가 아니라 예산이나 법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노사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합리적인 단체협약 체결이다. 단체협약은 노사간 이해의 상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이 때 갈등의 해결을 위해 '소통'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

가족 사이에서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목을 이룰 수 없듯이, 그 어떤 조직이라도 소통에 실패하면 죽은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소통의 첫 단계는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소통은 다양성을 인정해야만 가능해진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소통은 불가능하다. 소통은 단순히 나의 뜻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다음 단계는 적합한 방식을 찾아내어 소통을 실천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에 맞게 소통을 시도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나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7월,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무원 노조가 정부사상 최초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가져 공직사회에 노사문화의 새 바람을 불어넣었다.

우리 교육청도 2011년 1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고영진 교육감과 우리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김성희 위원장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공무원노사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상생, 협력을 위한 공무원 노사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으며 고영진 교육감은 이번 선언문이 공무원노조가 정치적 중립과 청렴운동에 앞장서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전한 노조활동을 지향하려는 의미 있는 선언이라며 합리적이고 건강한 모범 노조와는 언제라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생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통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다.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 된지도 벌써 6년이 지났다. 공무원 노동운동은 비록 최근에야 노사관계의 영역에 나타났지만 향후 전반적인 노사관계의 지형은 우리 사회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의 단기적인 이익을 외면할 수 없지만 이러한 이익을 공동체의 이익, 나아가 공공의 이익과 결합시키려는 노력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시로 고충·제안을 듣는 노사간의 소통을 통해 노사상생·협력 방안을 실천하여 건전한 노사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에 대한 교육적 이해와 접근



이 국 식

경상남도교육청 초등장학담당 장학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난 6월 14일, 2012학년도 부터 전국의 초, 중, 고교를 대상으로 주5일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전면적 시행은 학습자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강조하는 새로운 학력관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주40시간 근무제 확대라는 국가 사회적 새로운 변화를 그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주5일수업제 도입의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5일수업제는 미래 학습자의 핵심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5일수업제를 통해 학교의 재량수업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이 확대되면서 학교 밖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체육관 등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직접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대폭 증가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의 계발에 일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학교-가정-사회의 파트너십 강화로 새로운 학습공동체가 구축될 것이다. 주5일수업제는 학교중심의 학습의 장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면서 학부모와 교사, 학생간의 교육적 유대가 강화되리라고 예측된다. 따라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의 폭넓은 활용으로 지역사회가 교육의 중요한 무대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셋째, 학교 자체 교육과정운영과 조직의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주5일수업제를 통해 학교에서는 교육내용과 영역, 적용범위 및 투입시기 등과 관련하여 학교운영 체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방과후프로그램과

새롭게 신설될 토요일업일 프로그램과의 연관성과 차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교과수업과 교과 외 체험활동 간의 구분과 체계적인 연계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자기 계발의 새로운 계기와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최근 우리도 교육청과 연수원이 함께 고민하면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쉬는 토요일을 이용한 토요일무연수가 교육현장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연계한 교사들의 의미있는 연수활동이 봇물 이루듯이 전개되어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1. 주5일수업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주5일수업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각계 각층으로부터 교육적 기대와 사회적 우려가 동시에 교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교육적 기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교교육에 대한 비대화(肥大化)와 고의존도 구조에서 가정과 사회와의 균형적인 분산 구조로 변화하면서 교육공동체를 새로운 차원에서 구축해가는 중요한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학교는 교과 및 교과 외 활동을 포함한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운영과 학교조직의 재구조화가 가속될 것이며,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주도적인 학습력 신장을 위한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주5일수업제의 전면 시행에 따른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인 우려에 대하여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우리 모두가 눈여겨 챙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첫째,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 학교에서의 수업일이 축소되면서 교육 내용 역시 축소되어야 하고, 주2일 연속 휴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리듬이 깨어져 월요일 수업에 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소외계층의 나홀로 학생에 대한 보육과 돌봄이 걱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비교육적인 환경 노출(무력한 하루, 과도한 TV 시청, 과도한 컴퓨터 게임과 놀이, 욕의 방황, 불건전한 놀이)로 인해 학생 개인의 안전상 문제와 함께 청소년 비행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우려에 모두가 고민하고 있다.

셋째, 주말을 이용한 새로운 사교육 증가로 교육격차가 증대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발빠르게 주말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새로운 공략이 예상되므로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사교육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격차가 확대되는 것에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

2. 주5일수업제 시행에 대비한 교육적 역할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교-가정-사회로 연계되는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먼저 축소된 수업일에 대한 대응이다. 축소된 수업일에 대한 대응은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학교는 우선 교과(군)간, 학년(군)간, 활동 영역간 교과내용의 무의미한 반복이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정 재편성 및 재구성 작업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교과내용을 엄선하고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기초학력 및 학업성취도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연계적인 학교행사, 동아리활동, 재량활동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시간 배정과 운영방안의 모색에 골몰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증가된 휴업일에 대한 대응이다. 증가된 휴업일에 대한 대응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대처해야 효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토요 휴업일 프로그램을 정선하여 보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돌봄교실을 토요일까지 확대하여 보육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타부처와 협조를 바탕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한 토요스포츠 및 문화예술 강사의 배치를 확대하고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협동 프로그램 및 인간관계 형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생활지도를 위한 학생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자원 제공 및 인력풀 확보로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지역주민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범사회적인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는 주말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며, 생활지도 및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등과 함께 공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교육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며

마무리 하면서 주5일수업제의 전면 시행에 따른 교육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본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책임은 토요 휴업일에 무엇인가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지는 의미로 보면 좋겠다. 학생들이 분명히 하고 싶은 활동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서, 혹은 장소나 시설이 없어서, 혹은 비용과 접근성으로 인하여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혹은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가 다양하고 풍부한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마련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즐겁고 유의미한 주말을 만들어주기 위한 기성세대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대해본다.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주5일수업제 이렇게 준비하고 운영합니다



김 정 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장학사

2012학년도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주5일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하고, 지역별·학교별로 시행 여건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 하에 자율 실시한다.

주5일수업제는 학생 자녀를 둔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이며,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자기주도적 학습력, 창의력을 중시하는 학력관의 대두와 창의성·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2009 개정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등 다양한 요구와 필요성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5일수업제를 운영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주5일수업제 추진 목표 및 비전



2. 주5일수업제 추진 로드맵

준비기 ('11. 6~'12. 2)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5일수업제 TF팀 구성 ▶ 주5일수업제 추진단 구성 ▶ 시범 운영학교 선정 운영 ▶ 연수 및 홍보 ▶ 주5일수업제대비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델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5일수업제 추진단 구성 ▶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 추진 ▶ 단위학교대상 연수 및 홍보 ▶ 토요일휴업일 및 토요일프로그램 개발 ▶ 사교육비 경감 대책팀 구성 ▶ 저소득층 자녀 프로그램 및 농·산·어촌 학교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5일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수립 ▶ 토요일휴업일 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 학부모대상 연수 및 홍보

추진기 ('12. 3~'14. 2)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학교운영 우수사례공유 ▶ 교육기부 및 지역기관과의 지속적 MOU체결 ▶ 학교 '토요 Sports Day' 운영 확대 ▶ 주5일수업제 지원센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과정·편성 운영 지도 ▶ 토요일휴업일 운영 모니터링 ▶ 지역유관기관과의 MOU지속적 체결 및 활용방안 안내 ▶ 토요일프로그램 개발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생활지도 서포터단 운영 ▶ 주5일수업제 교육과정편성·운영 ▶ 지역유관기관 활용 체험활동 운영 ▶ 미등교 및 나홀로 학생 대책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 학교 '토요 Sports Day' 운영

정착기 ('14. 3~)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교육청 및 학교 토요일휴업일 운영 모니터링 ▶ 주5일수업제 일반화 및 우수사례 홍보 ▶ 지원중심의 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요일휴업일 운영 모니터링 ▶ 단위 학교별 주5일수업제 운영 자료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요일휴업일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 ▶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만족도 조사 ▶ 특성화된 주5일수업제 운영

3. 주5일수업제 주요 추진 내용

가. 내실있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 '06년부터 월2회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라 205일 내외로 운영되던 수업일수 190일 이상으로 조정
 - ※ 190일 = 170일(34주×주5일, 교육과정기준 수업일수)+20일(학교장 재량 수업일)
-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준 수업시수 확보
- 학년군제, 집중이수제, 블록타임제 등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탄력적 운영 방안 도입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나. 토요일휴업일 돌봄 및 학생활동 지원 확대

- 수요가 있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까지 토요 돌봄교실 확대
- 주중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 권장
- 「토요 Sports Day」운영, 토요스포츠강사 150명 배치
- 학교,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단위 다양한 토요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학교특성에 따른 단위학교 중심 프로그램 운영

- ▶ 도서관 : 학부모, 학생, 지역민 도서관 개방 및 독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 체육관 : 배드민턴, 배구, 농구, 댄스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 개발 운영
- ▶ 운동장 : 축구교실, 야구교실, 배구교실 등 프로그램 개발 운영
- ▶ 음악실 : 합창, 중창, 합주, 작곡 등 음악 체험 교실 운영
- ▶ 영어체험실 : 영어회화, 영어연극, 영어노래 교실 등 운영
- ▶ 컴퓨터실 : 워드프로세스, 엑셀, 그래픽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 기타 다양한 학교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교육지원청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 음악교실(합창, 합주, 풍물, 작곡, 음악감상 등)
- ▶ 스포츠교실(축구, 농구, 배구 등)-토요스포츠강사 적극 활용
- ▶ 독서교실(독서논술, 독서기행, 지지와의 만남 등)-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활용
- ▶ 미술교실(수채화, 만들기, 조소, 디자인, 미술관 체험, 도예체험 등)
- ▶ 창의성교실(로봇만들기, 과학영재 등), 요리교실, 댄스교실 등
- ▶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 가족독서캠프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추진
- ▶ 스포츠 자원봉사제 확대 : 대학생, 스포츠 스타, 지역인사 등

도단위(직속기관 및 도청)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 ▶ 교육연수원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토요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 ▶ 교육연구정보원 : 토요휴업일 활용 증대를 위한 사이버가정학습 지원 강구, 리더십 및 창의력 배양을 위한 영재 캠프 등 프로그램 운영
- ▶ 과학교육원 : 토요 과학체험교실, 발명 교실, 천체관측교육, 전시관 운영 등
- ▶ 덕유교육원, 낙동강수련원, 남해학생야영수련원, 신촌유학교육원, 학생교육원 : 기관의 특성을 살린 토요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시설개방
- ▶ 창원, 마산, 김해도서관 : 토요독서활동, 체험활동, 문학기행 등 운영
- ▶ 우포생태교육원 : 토요생태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다.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도교육청 주5일수업제 시행 추진단

도협의회

- ▶ 주관 : 교육청, 도청
- ▶ 구성 : 도청, 유관기관, 분야별 관계관 및 전문가, 학부모
- ▶ 규모 : 20명 구성

지역교육지원청 주5일수업제 시행 추진단

지역협의회

- ▶ 주관 : 교육지원청, 시·군·구
- ▶ 구성 : 시·군·구청, 분야별 관계관 및 전문가
- ▶ 규모 : 지원청별 7 ~ 15명(199명 구성)

학교별 주5일수업제 시행 추진단

학교협의회

- ▶ 주관 : 단위학교
- ▶ 구성 : 교사 및 학부모, 지역인사 등
- ▶ 규모 : 학교별 3 ~ 5명 내외의 권장

4. 예산지원 계획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토요 돌봄교실 확대 운영비 10억4,000만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46억8,000만원, 토요스포츠 강사 지원비 2억9,000만원, 토요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2억4,000만원, 연구학교 운영, 지원센터구축 등에 총 6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주5일수업제가 전면 자율 시행됨에 따라, 학습의 장이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 현장 체험학습이 활성화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신장될 것이다.

토요 방과후학교와 토요 돌봄교실 운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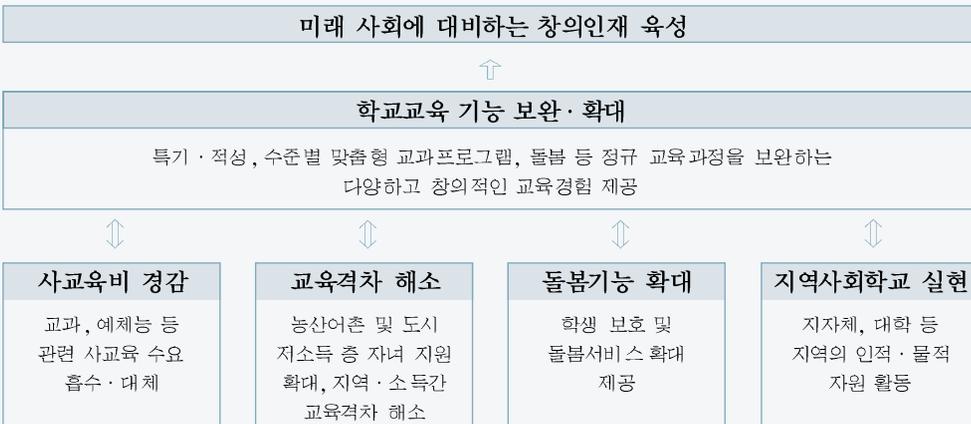
박 정 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사

1. 방과후학교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에 따라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교육 및 보호프로그램으로 특기적성 프로그램, 맞춤형 교과프로그램, 돌봄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방과후학교가 2006년 전면 도입된 이후,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으나 프로그램 및 강사의 질적 수준 저하, 추진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교과부에서는 기존의 방과후학교 운영과는 변화된 모습으로 현장 적합성과 실효성 있는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방과후학교의 비전을 학교교육의 비전에 맞춰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인재 육성』으로 설정하여 ‘학교교육 기능의 보완·확대’를 목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단위학교 자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전략으로 운영 체계를 설정하였다.



2.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주5일수업제에 대비합니다

2012년 시행되는 주5일수업제 전면 도입에 따라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양한 창의적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소질을 계발하고 비람직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수요가 있는 모든 학교에서 예체능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중심으로 토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며 학교간, 지역 내 연계를 통해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후학교 수강을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대폭 확대하여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은 돌봄교실이 책임집니다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 탁아, 학습지도, 과제학습, 특기적성교육 등 돌봄과 교육의 기능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도 함께 운영한다.

가. 프로그램 구성

과 정	영 역	비 고
교육 프로그램(Edu)	교과과정	논술, 음악, 영어, 미술, 과학탐구 등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강좌 참여
돌봄 프로그램(Care)	교육활동실	과제 해결, 예·복습 활동, 놀이활동,
	사랑방형	자율 활동 과정, 놀이활동(보드게임, 블록놀이 등)

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체계

유형	운영시간		프 로 그 램	담 당
아침 돌봄	06:30~09:00	조식 또는 간편식	운동 또는 독서지도	교사 또는 시간강사
오후 돌봄	12:00~18:00	간식	숙제지도, 특기지도 방과후학교 참여	전담강사 (프로그램 / 급식 보조인력)
저녁 돌봄	18:00~22:00	석식	자율활동, 귀가지도	전담강사 (귀가지도 보조인력)
토요 돌봄	09:00~13:00	중식	별도 체험프로그램 운영 또는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전담 또는 시간강사 프로그램 담당강사

다. 학생 안전 보호망 강화

학부모가 아동을 데리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고 배움터 지킴이 등 학교내 안전관련 인력을 적극 활용하며 학교주변 지구대와 협력하여 학생 귀가시 순찰을 요구하거나 학교에서 귀가도우미를 활용하여 학생의 귀가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

4. 꿈을 찾아가는 징검다리! 방과후학교

내년부터 시작되는 방과후학교는 3월 신학기 정규수업과 함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작하게 된다. 방과후학교의 내실화 추진으로 학생이 즐겁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방과후학교는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학교예술강사 토요일프로그램 지원 방안



이 외 숙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사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주5일수업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다양한 체험학습 환경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또한 한부모 가정,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의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우려는 공교육에서 돌봄기능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학교예술강사 하반기 토요일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국악, 연극, 무용 등 8개 분야에서 풍부한 예술교육 경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학교 예술교육의 질적수준 향상과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을 함양하고, 일선 학교 교사의 예술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1년 경남교육청 관내 학교 중 예술강사를 지원받는 학교는 538개교(78,060시간, 도교육청 지원예산 약 16억원, 문화관광부 예산 약 16억원)이다.

1. 학교예술강사 토요일프로그램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2011. 9월 ~ 12월(4개월)
- 지원분야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8개 분야)
- 지원대상 : 문화예술적 혜택이 적은 지역의 주5일수업제 시범 운영 초·중학교(14개교), 토요일스포츠강사 지원 학교 제외
- 지원교육과정 : 토요일프로그램(동아리 활동)
- 지원시수 : 총 476시간(14개 교당 34시간)

○ 지원내용(국악 예시)

- 임진왜란과 전래놀이 <강강술래>를 통한 전통 음악
- 창의력 쑥쑥 단소 나라 / •언어를 통해 음악과 소통하다!!
- 별주부전으로 음악 꾸미기 / •땡글땡글 감 형제들
- 장단 놀이를 위한 미니 장구만들기 / •우리악가이야기 '사계'
- 우리장단 열씨구! / •관소리를 감상하고, 창극 <박타령>으로 표현하기
- 몸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가래질 소리>
- 창작 소리극을 활용한 국악가창수업
- 오감으로 듣는 우리악기 감상

2. 예술강사 배치학교에서 할 일

○ 예술강사 관리 시스템에 배정시수 등록

- 토요일프로그램 지원 예술강사 지원학교로 선정된 경우 배정 받은 시수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예술강사 교육활동 지원

- 1 예술강사와 학교담당자의 지속적인 업무 교류 협조
 - 담당교사는 교육 계획수립 및 수업 진행 등과 관련하여 예술강사와 지속적인 상호 협력
 - 담당교사와 예술강사 간 교육계획수립 및 협의(9월 1주차)
- 2 담당교사의 예술강사 출강 승인
 - 수업 후 교육진흥원 통합운영시스템(ums.arte.or.kr)을 통해 예술강사가 등록한수업 일지를 담당교사 확인 후 출강 승인
 - ※ 학교별 배정시수 준수
 - 1 문화예술교육 배정시수 준수(34시간)
 - ※ 배정된 시수를 초과한 수업시수에 대한 강사료는 학교에서 별도 부담
 - 2 학교에 배정된 수업시수는 문화프로그램 취지에 맞는 교육 활동 외에 다른 교육 활동(수업과 무관한 시험감독, 소풍, 수학여행, 캠프 등) 활용불가. 단, 문화프로그램 수업과 연계된 행사 및 발표회 등 지원가능
- 3 교육활동을 위한 실기교실 제공 등 교육환경 조성
 - 연극·무용(실습실 또는 무용실), 영화(시청각실) 등 제공
 - 기타 수업진행에 필요한 소모품, 교보재, 복사비 등 학교 부담
 - 강사의 대기실, 책상 등 교육활동 편의 제공 협조
- 4 동 사업 관련 행정 협조: 사례집 제작을 위한 학교 현장 취재 협조 등
- 5 토요일프로그램 지원사업 학생 모집 시 동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한부모 가정, 맞벌이 부부 자녀 등 우선 지원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철민
경상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사

엘리트체육에 대한 비판은 생활 체육을 균형 있게 지원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각 분야의 체육 활동은 여전히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흐르고 있고,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국가의 행정적 지원 속에 추진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생활체육의 싹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매개가 될 것이다. 더구나 2012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수업제를 정착시키는데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스포츠클럽’이 정착되면 학생들의 체력 증진, 사회성 의식 함양 및 사제동행 스포츠 활동을 통한 활기찬 학교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1. 학교스포츠클럽의 실천 철학

학교스포츠클럽에서의 스포츠 활동은 스포츠 기술을 배우고, 승리와 존중의 균형 속에서 즐거움과 재미는 물론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과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2.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노력

가. 청소년 중심 스포츠 문화 형성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스포츠 활동은 교사 주도가 아닌 학생 주도의 클럽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회원 모집, 운영 방침, 행동 강령 등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면서 소속감, 책임감 등을 갖게 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스포츠 활동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에 각종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게시판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수시로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해야 할 것이다.

나. 운영 인력 확보

학교스포츠클럽은 교사의 열의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문적인 지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스포츠클럽에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특기·적성을 계발하고, 향후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여 양성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 지원 확대가 중요하다.

1) 토요스포츠클럽 활성화

2012년도 초·중학교에 토요스포츠클럽 150명이 지원될 예정이므로 토요스포츠클럽을 이용하여 토요 학교스포츠클럽 강습, 토요 스포츠클럽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대학생의 교육활동 지원

대학 내 동아리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제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진주교육지원청의 경우 2012년부터 진주교육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초등학교 주말 체육활동 프로그램(축구, 배드민턴)을 지도하는 봉사 동아리를 결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3) 학교스포츠클럽 예산 지원

학교스포츠클럽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 지원 뿐 만 아니라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기타 기관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지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의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스포츠클럽과 지역 생활스포츠클럽과의 지매결연 등과 같은 방법 등으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학생들은 체육교과 수업 중에 배우고 익힌 기능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여 체력증진 및 체육특기 계발, 창의·인성교육 등 학생 개개인의 발달과 건강한 학교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클럽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학교체육 담당자는 물론 보다 많은 교사들에게 스포츠 관련 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한 전문성 신장과 마인드 확산을 꾀해야 할 것이다.



토요일에는 보다 넓은 배움터로!



손보경
김해 덕정초등학교 교사

1980년대 초에 등장한 ‘자율 학습의 날’이나 ‘책가방 없는 날’을 통해 가능성을 탐색한 이후로 2005년에는 월 1회, 2006년 이후에는 월 2회로 확대 실시해 온 주5일수업제는 그동안 실시했던 경험과 성과에 의해 2011년 7월 이후 20인 이하 작업장에서도 주 40시간 근무를 확대하는 정책에 기초하여 2012학년도부터 전면 자율 도입하게 된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창의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력관으로 창의성·인성 함양을 위해 자연과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학습 환경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 국가 차원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교육시스템 재구조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주5일수업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포함한 교육환경 변화 및 교육개선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돕고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하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2012년 주5일수업제의 전면실시에 대하여 나홀로 학생과 이에 따른 생활지도, 수업 결손과 학력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본교는 주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알찬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토요일휴업일 학생활동지원을 확대하며 내년의 주5일수업제 운영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지원체제를 충실하게 구축하고 있다.

▣ 토요일에도 신나는 학교 - (돌봄교실, 토요학교프로그램 토요스포츠데이 운영)

주5일수업제 시범운영을 하면서 가장 주의를 기울였던 부분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보호자

부재상태의 나홀로 아동이었다. 그래서 토요일에도 돌봄교실을 운영하여 저학년을 중심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고자 하였다.

마땅한 토요일활동을 찾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토요일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평소 학교에서 해보지 못했던 여러 체험활동과 특기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장을 마련하였다.

먼저 본교의 교사가 학교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는 학력향상, 독서-글쓰기, 예체능 체험활동, 놀이 조작활동 등 다양한 영역의 12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별로 4개의 프로그램을 순환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토요스포츠데이 야구교실은 인근 지역 학교 학생도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쾌한 야구방향이 소리와 아이들의 함성으로 토요일 운동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현재 한 프로그램당 10명~20명 정도가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토요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학생은 100명 내외이다.

▣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깨우는 토요 방과후학교

토요방과후 부서는 사전에 실시한 수요조사에 따라 예체능 강좌를 증설하여 모두 9개의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한 강좌당 20명 내외의 학생이 참여하여 18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새로 개설한 키키기 농구와 아이클레이, 음악줄넘기는 특히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아 수강생이 늘고 있다.

▣ 가족과 함께 하는 토요일체험

현재 본교의 학생 중 48% 이상의 학생이 토요일을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이나 지역문화행사 체험활동 참여 등으로 보내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학부모의 58%도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을 들었다. 이렇듯 주5일수업제는 현대사회에서 해체되어 가는 가족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의 설문조사 결과 앞으로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문화시설 이용 요금 지원 등 공공기관의 행·재정적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적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주5일수업제는 학교뿐 아니라 사회전체가 대비하고 지원하여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주5일수업제 운영을 통해 밝고 건강한 심신(心身) 만들기



유 정 선
창원 용원중학교 교사

1. 주5일수업제 시범학교로 지정되다

우리 학교는 진해에서도 가장 멀리 자리한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반듯하고 당당한 미래 지향적인 인재육성'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올해로 개교 3년째이지만 짧은 기간에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은 반듯한 학교이다. 이런 학교에 몸담고 있는 교사로서 늘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끔은 실 틈 없는 바쁜 일상 탓에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다. 가끔에 촉촉한 단비라도 내린 듯 2011년 7월 18일, 우리 학교가 주 5일수업제 시범학교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전 교사가 모여 주5일수업제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 하여 학생들의 창의 및 인성 함양과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2. 주5일수업제 이렇게 운영한다

가.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한 토요일 Sports Day 운영

우리 학교는 경남교육청의 특색과제인 운동하는 학교의 일환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한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여 공부하면서 운동하고 운동하면서 공부하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축구, 농구, 배드민턴, 줄넘기, 티볼, 넷볼, 달리기 팀을 편성하여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 팀별로 연습을 하고 토요일휴업일에 토요일그제를 실시하여 우승팀에게 학교장 상을 수여하는 등 운동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1) 토요일업일에 운영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클럽명	인원	지도교사	장소	비고
축구	23	이운석, 최우람	운동장, 체육관	두 클럽씩 격주로 운영
농구	13			
배드민턴	16			
티볼	21			

나.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토요일 프로그램

1) RCY의 토요일업일 프로그램(30명)

- RCY 안전체험캠프, 농촌봉사활동, 사랑의 빵 나누기, 봉사 포스트 활동 등 운영

2) 스카우트의 토요일업일 프로그램(62명)

- 지역문화 탐방, 스카우트 별급 과제활동, 문학기행, 지방 OL대회, 미술 캠프 등 운영

다. 토요일 방과후 학교 운영

토요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고 토요일 오전을 알차게 보내는 돌봄학교 기능을 겸한다.

강좌명	인원	기간	실시 시간	장소	강사
플룻반	11명	격주 운영	09:00 ~ 11:15 (3시간)	가사실	외부 강사
피아노, 플룻반	8명	격주 운영	10:00 ~ 12:30 (3시간)	음악실	학부모 자원봉사자
방송댄스	12명	격주 운영	10:00 ~ 12:30(3시간)	시청각실	외부 강사

라. 토요일업일 일반 등교 희망 학생 운영 프로그램

월	일	교사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장소	준비물
8월	27	김해준	영양 속의 과학이야기	식품 속에 포함된 당류 알아보기	기사실	필기구
9월	3	박성근	디카 활용	디지털 카메라 촬영 기술 익히기	방송실	디카
	10	송청옥	영어독서반	영어책을 읽고 활동지 작성	영어전용실	필기구
	17	하태구	과학 독서 토론	주제별 심화 토론	과학실	과학콘서트

마. 활동 사진



토요일Sports Day(축구)



토요일Sports Day 배드민턴



토요일업일 RCY활동



토요일방과후 학교 플룻

3.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밝고 건강한 심신 육성 기대된다

결혼 가정으로 부모의 보호와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 위치한 우리 학교는 주5일수업제로 토요일업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이 가정에서 나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토요일 Sports Day 프로그램은 사제동행 스포츠 활동을 통해 밝고 건강한 학교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며,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학교체육과 지역 생활체육활동의 연계를 통해 우수 체육활동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마음으로 전 교사가 주5일수업제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고 이런 노력의 결과, 학생들의 밝고 건강한 심신(心身) 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상남도과학교육원의 토요체험교실 운영



안수영
경상남도과학교육원 교육연구사

1. 들어가며

경상남도과학교육원(이하 '본원'으로 표기)에서는 자기주도적 탐구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과학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과학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각종 대회와 연수를 진행하며, 화석문화관을 비롯한 과학관과 전시관을 활용하여 지역 과학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주5일수업제 시행과 때를 맞춰 본원에서는 토요일업일을 활용한 토요체험교실을 개설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과학·발명에 대한 흥미와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다.

다음은 2012년 전면 주5일수업제 시행으로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본원의 토요체험교실에 대한 운영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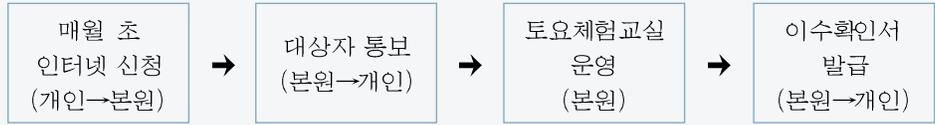
2. 2011년 토요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

토요일업일에 본원에서 운영하는 체험교실의 전체 개요는 <표>와 같다.

<표> 2011. 토요체험교실 운영 개요

구분	토요 과학체 험교실	토요 발명체 험교실	토요 천체관 측교실
운영 목적	과학적 흥미와 탐구력 배양, 과학문화 대중화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통한 발명문화 활성화	천체관 측활동을 통한 천문현상 관련 탐구능력 신장
체험활동시간	10:00 ~ 15:20	10:00 ~ 15:20	19:00 ~ 21:30
체험활동내용	과학시연, 공작 및 체험, 천체투영관 교육	발명이론, 공작 및 체험, 천체투영관 교육	천체관 측이론, 관측 실습
인원	55명	40명	80명
대상	초·중학생, 학부모	초등3학년~중학생, 학부모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일자	연 22회(매월 토요 휴업일)	연 22회(매월 토요 휴업일)	연 12회(매월 2주차 토요일)
신청방법	매월 초 개인별 인터넷 신청 (신청순 선정)	매월 초 개인별 인터넷 신청 (신청순 선정)	매월 초 개인별 인터넷 신청 (신청순 선정)

토요체험교실 전반적인 운영 절차는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토요체험교실 신청에서 이수증 발급까지

가. 토요과학체험교실

토요과학·발명체험교실은 초·중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월 2회 토요휴업일 4시간 동안 진행된다. 체험프로그램은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오전 3시간 동안 2명의 전문강사와 보조요원들에 의해 진행되고, 오후에는 1시간 동안 전체투영관에서 전문현상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나. 토요발명체험교실

토요발명체험교실은 초등 3학년부터 중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월 2회 토요휴업일 4시간 동안 진행된다. 발명에 대한 이론과 함께 발명공작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학생반과 학부모반을 구분하여 2개 반을 오전 3시간 동안 운영한다. 오후에는 토요과학체험교실 참가 학생·학부모와 함께 전체투영관 체험 시간을 가진다.

다. 토요천체관측교육

토요천체관측교육은 매월 2주차 토요휴업일날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동안 첨단 천체투영관과 망원경을 활용하여 다양한 천문현상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3. 2012년 토요체험교실 운영

본원에서는 2012년 전면 시행되는 주5일수업제에 맞춰 체험프로그램 종류는 기존대로 유지하되, 운영일은 매월 2, 4주차 토요휴업일에서 매주 토요일로 확대 운영하여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수강 인원을 확대하여 1, 3주차에는 과학체험교실과 천체관측교육을 운영하고, 2, 4주차에는 발명체험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4.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이수 확인서 발급

창의인성교육의 강조와 함께 학교장이 허가한 체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결과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적으로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다. 주5일수업제의 전면 시행과 함께 본원에서 운영하는 토요체험교실은 전형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에 해당한다. 이에 본원에서는 토요체험교실 이수 내용이 창의적 체험활동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학생들에게는 이수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토요 프로그램

- 공공기관 토요 프로그램 운영사례 -



안 지 혜

창원시시설관리공단 늘푸른전당

I. 들어가며

“당신들은 교육분야에서 극히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교육의 길 대신에 주입식 암기교육에 극단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상력 발전소’라 불리는 MIT미디어랩의 창시자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가 1995년 한국 교육계에 던진 충고로부터 15년이 지나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청소년들의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이 제시한 시수 동안의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인력의 다양한 장소에서 주말, 방학 등 다양한 시간들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과 활동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주5일수업제는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역할 강화,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체험학습 등 교육의 목적과 방향에서부터 교육 전반에 이르는 대대적인 교육개혁의 급격한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학교의 수업을 주 6일에서 주 5일로 줄이는 문제는 단순히 학교 가는 날을 하루 줄이는 의미라기보다는 학생들의 ‘학습 형태’가 변화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 수 있다.

II.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주5일수업 활성화

책가방없는 토요일(주5일 수업)은 지나친 교과지식 위주의 학교 교육활동을 지양하고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늘푸른전당은 진로, 봉사, 동아리, 자율활동 4개 영역 50여 개 프로그램으로 책가방없는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한해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본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중 기획, 진행 및 평가단계에 이르는 전 교육과정을 3개 기관(학교, 청소년시설 및 전문가 집단)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1) 창원토월중학교

- ① 기간 : 2011년 4월 ~ 11월 (총 10회 과정)
- ② 프로그램 내용 : 암벽등반 및 기공체조
- ③ 특이사항 : 남·여공학 학교로 야외활동인 암벽등반에 여학생 참여

- ④ 평가 : 압벽등반 수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 목표과정을 압벽등반에 대한 두려움 해소와 안전장비 착용 및 초급단계 도전으로 정하였으며 하반기 목표는 실질적인 압벽등반을 통한 도전, 모험과 개척정신을 체험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 1년 과정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있다. 처음 3개월간 초급단계를 벗어나지 못해 서로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2학기에 들어서면서부터 2인 1조를 형성하여 등반자와 안전요원의 활동을 무난히 해내며 중급과정에 도전하고 있다.

사례2) 창원반림중학교

- ① 기간 : 2011년 5월 ~ 12월 (총7회 과정)
 ② 프로그램내용 : 홀랜드진로탐색검사 8가지 유형중 AS형(공예,예술분야)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에게 유행댄스 및 공예교실 프로그램 운영
 ③ 특이사항 : 남·여 공학으로 두 프로그램에 남, 여학생 교루 분포
 ④ 평가 : 공예프로그램은 일상생활 소품 및 악세서리 등을 손수 만들어 보는 과정으로써 미적 정서와 조형기능, 창조성 함양이라는 교육목표를 성취하고 있다.

특히 회를 거듭할수록 남학생들의 손끝에서 아기자기하게 만들어내어지는 공예품들은 전문지도자 및 교사의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데 이는 성별의 차별적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모든 학생들이 자기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조력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위 사례는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부터 담당교사, 청소년지도사 및 전문가 3인의 협의를 통해 수업내용과 목표를 선정한 커리큘럼으로 청소년들을 지도한 사례로 일년 연계과정이 아닌 일회성 체험활동이었다면 각 프로그램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표에 청소년들과 함께 도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III. 나오며

이에 2012년 늘푸른전당은 일선학교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장기적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 ① 가족단위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라 가족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험활동 위주의 전문프로그램 실시
 예) 늘푸른전당의 챌린지 시설 등을 이용한 가족단위 프로그램 운영 계획
 ② 주5일 수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기존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지식교육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 즉 체험활동을 통한 청소년들의 꿈, 희망, 소질, 적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기성 프로그램 운영
 ③ 학교와 청소년시설과의 협력체계 구축(MOU)
 - 학교와 청소년시설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인적·물적 네트워크 형성. 이는 청소년수련기관을 청소년교육기관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안정성과 전문성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업무연계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주5일수업제를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보내야 하는나의 문제를 학생 개인이나 학부모 및 학교에게만 단순히 내맡겨서는 안되며, 이를 학교에서의 학습과는 다른 형태의 다양한 교육활동의 기회로 인식하고 사회가 공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에 청소년시설과 청소년지도사들이 학교와 함께 협력하여 주5일수업제인 토요일이 학생중심의 새로운 열린교육의 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도서관에서 행복한 토요일 만들기

- 공공도서관 토요일독서프로그램 운영사례 -



유 소 현
의령도서관 사서

얼마 전 도서관 견학을 온 아이들에게 “공공도서관에서는 책만 볼 수 있죠?”라고 하니 “그렇다”고 하는 대답들 사이에 “아니요! 종이접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쿠키도 만들고, 아! 컴퓨터도 할 수 있어요! … …”와글거리며 담당자가 원하는 답을 말한다. 그렇다. 이제 공공도서관은 책만 읽는 곳이 아님이 확실해졌다. 특히 우리도서관은 도서관을 신축 개관한 후 1년 동안 지역사회 의 정보·문화센터로서의 그 역할과 위상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토요일이면 지역주민들이 가족단위로 도서관을 찾아 책과 함께 여가생활과 체험활동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의 지적활동과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 충족과 책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토요일독서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 의령 도서관 토요일독서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대상 및 인원	내 용
동화 속 쿠키클레이	3.12. ~ 7.30. 매주 토 (10회)	유아 6 ~ 7세 30명	쿠키 만들기를 활용한 독후활동
책이랑 쿠키탕	9.17. ~ 11.12. 매주 토 (8회)		
요리조리 독서 활동	3.12. ~ 5.28. 매주 토 (12회)	초등 1 ~ 3 30명	다양한 독후활동을 체험하여 책과 친해지기
나만의 독서책 만들기	9.17. ~ 11.12. 매주 토 (8회)		
논리력 생각프레임	3.12. ~ 5.28. 매주 토 (12회)	초등 4 ~ 6 20명	독서와 체험을 통한 논리적 생각 키우기와 우리나라 역사알기
오감으로 느끼는 우리역사	9.17. ~ 11.12. 매주 토 (8회)		

또래끼리 어울려 책을 읽으면, 같은 내용도 훨씬 흥미롭게 느낄 수 있어 독서 습관을 들이기 수월하며 친구와 함께 참여하는 독서프로그램은 독서흥미를 배가시켜준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우리도서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시 이점을 고려하여 독서프로그램을 유아와 초등저학년과 초등 고학년으로 대상을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은 뒤 주인공이나 캐릭터를 쿠키로 만들어 보는 유아 쿠키 프로그램은 책 읽는 즐거움과 함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여 주는 창작활동이 놀이형태로 통합 구성되어 있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유아와 가족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온 가족이 함께 도서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어릴 때부터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 습관을 기르며, 가족단위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어 가족화합의 장으로서 도서관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책이랑 쿠키랑



요리조리 독서활동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종이접기, 클레이, 요리놀이 등 다양한 독후활동 체험을 통해 책을 스스로 읽고, 개개인의 지식을 넓혀 독서력을 쌓을 수 있는 독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 저학년은 자연스런 생활 속에서 문자 언어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갖게 되는 유아기를 지나 독서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접어든다. 이에 부모와 어린이 스스로가 독서에 관심이 높은 만큼 프로그램의 반응이 매우 좋다.

초등 고학년은 책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독서논술과 역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역사, 지리, 세계사 등 여러 방면의 주제를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접목, 책 읽기·쓰기 활동을 실시하여 독서의 즐거움을 주고 있다.

매주 토요일만 되면 도서관이 잔치집이다. 총총총 독서프로그램 수업을 하러 뛰어오는 아이, 웅기종기 서가에 모여 책을 고르는 가족, 북적북적 도서관에 모여 있는 이용자의 모습에 감사하고 즐겁다. 이용자가 행복해 하며 찾는 도서관이야말로 도서관 존재의 의미이기에 앞으로도 지역 정서에 맞는 다양한 독서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매진할 것이다.

문제중심학습(PBI)으로 통합적 학습능력을!



노형준
밀양산외초등학교 교사

◆ 아이들이 이끌어가는 즐거운 수업

“선생님께서 제시한 문제를 친구들과 의논하여 해결방법을 찾고, 자료를 조사하여 정리·발표하다 보면 지루했던 수업시간이 아주 재미있어져요.” 문제중심학습으로 사회과 수업을 마친 학생들의 수업평가이다.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Instruction : PBI)은 교과 지식보다 실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지식을 조직하려는 교육적 전략이다. 즉, 학습자가 학습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교사의 지시나 강의를 최소화하고 학습자의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과제발표와 토의, 협동학습과 개별학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스스로 개념이나 해결책을 찾아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수-학습 형태이다.

◆ 새로운 수업을 위한 노력

〈문제중심학습에 의한 사회과 교수-학습 과정 설계안〉

학습 단계	학습 유형	교수 - 학습활동
수업분위기 조성 단계	일제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의 특징 및 학습목표 설명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 안내
문제 제시 단계	일제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 제출할 과제물 소개
잠정적 문제해결 시도 단계	조별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할 분담 및 다양한 아이디어 수용 잠정적인 해결안에 대한 생각 종합 조별 학습목표 설정 및 학습자료 선택
자율학습 단계	개별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어진 과제 해결 자아성찰적 시간 제공
협동학습 및 토의학습 단계	조별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별 협력 및 협동학습 전문적 지식 배양 및 새로운 정보 재종합
토론 결과 발표 단계	일제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 교환을 통한 지식 공유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능력 함양
정리 및 평가	일제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학습평가, 팀원학습평가, 팀간학습평가

◆ 실천으로 수업의 미래를 꿈꾼다

〈문제중심학습 수업 사례 : 6학년 사회과 ‘왕들과의 만남’〉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유의점
문제제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국 이야기나 역사 드라마를 통한 동기유발 • ‘왕들과의 만남’을 주제로 문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동기 및 의욕 부여
문제해결 계획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별 문제 해결표 작성(알고 있는 것, 더 알아야할 것, 알아가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적인 분위기 조성
탐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를 세운 왕, 전성기 때의 왕, 내가 존경하는 왕 등에 대해 탐색 • 다양한 자료(도서, 인터넷 등) 및 체험활동(현장학습 및 수확여행 등)을 함께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주도적으로 내용을 조사·정리하도록 유도
해결책 고안하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제시한 평가기준표에 따라 모듈별 해결 계획 세우기를 위한 토의활동 • 발표 계획 세우기 : 발표내용 정리 방법과 발표 방법, 역할 분담 등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 배양
해결책 발표 및 평가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발표 : 보고서, 인터뷰, 역할극, 역사신문 등 • 궁금한 점, 잘된 점이나 느낀 점들에 대한 의견 공유 •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 유도

◆ 수업 혁신의 주체는 교사

학교에서 수업 혁신의 주체는 교사이다. 교실에서의 수업은 교사가 전문가로서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수업의 경우 교사의 지식과 경험이 수업과 학교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된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의 수업력 향상을 위하여 개인의 필요와 능력에 따라 적절한 과제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흔히 우리는 학생들이 교사의 말에 잘 따르지 않고 떠들기만 하며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불평들을 하지만, 학생들은 재미있고 새로우면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고 흥미를 가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그 교실의 분위기는 교사의 역량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좋은 수업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며 학습동기를 지속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학습자를 위한 블랜디드 수업설계 안내



이 동 우
고성중앙고등학교 교사

1. 머리말

교육은 교수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의 문제라고 한다. 이것은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진술이다.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수업에 필요한 많은 요소들을 최적화하여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여건을 통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모형들을 고안해 내고 현장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블랜디드 수업에 대해 개념과 유형들을 안내하고 개별적인 수업 설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진술하고자 한다.

2. 블랜디드 수업의 필요성과 개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좋은 수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모든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하고, 적절한 질문과 설명을 하는 수업, 학습지나 컴퓨터 등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는 수업, 토의 토론 등 발표하고 내용 정리를 하는 수업, 문제의 해답을 찾는 방법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수업, 실험 등 체험활동을 겸한 수업 등이라고 한다.¹⁾ 이런 수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과 활동과 교수학습 방법들이 동원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블랜디드 수업은 다양한 전략과 활동과 방법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학생들이 판단하는 좋은 수업이라고 하는 것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블랜디드 수업은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학습 방법과 전달기제를 결합하여 학습 환경을 최적화하려는 설계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학습기제와 방법을 학습목표에 맞추어 선택, 조합하려는 것은 수업 설계에서 이미 주장되어왔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업 설계를 하는데 있어 이러한 설계는 반드시 필요하

1) 정석기, 『수업기술 향상을 위한 좋은 수업설계와 실제』, p26, 원미사, 2010

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블랜디드의 개념은 카테일처럼 혼합한다는 사전적 개념으로 접근할 때, 다양한 혼합 양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좋은 수업설계를 하기가 어렵다. ‘무엇을’, ‘어떻게’ 혼합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교육학계에서 블랜디드 수업을 20여 가지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일된 의미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까지 블랜디드 수업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되는 것을 정리해 보면 <표-1>과 같다.

<표-1> 블랜디드 수업의 차원²⁾

차원	해석	설 명
학습 공간의 통합	온라인 형태와 오프라인 면대면 형태의 통합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한 것을 교실 환경으로 확장하는 과정 그리고 교실 환경에서 경험한 사실을 온라인 환경으로 해석하여 전이하는 이중적 과정을 통해 학습을 강화
학습 형태의 통합	자기주도학습과 협동학습의 통합	개별학습자가 홀로 지식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자기주도학습과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동료학습자와 공유하여 역동적인 의사소통으로 수행하는 학습인 협동학습이 섞여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창출하게 됨
학습 유형의 통합	구조적과 비구조적 학습의 통합	형식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동료들과 대화,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과 같은 잠재적 과정 속에서의 배움으로 개별학습자를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통합하여 학습 영역을 확장함
학습 내용의 통합	규격화된 학습 내용과 학습자 스스로 구성하는 학습 내용의 통합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객체화되어 있는 지식의 단위를 끌어와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 내용으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 학습자의 선택권을 극대화 하는 취임을 확인할 수 있음
학습과 일의 통합	학습과 일의 통합	정형화된 학습의 상황이 아니라 실제 사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입체적 학습

3. 블랜디드 수업의 교육적 효과

블랜디드 수업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열람할 수 있다.

셋째, 학습자들의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넷째, 학습 구성원간의 긴밀하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1) 김혜진, 「시 감상능력 신장을 위한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수업 모형 연구」, 공주대학교, 2010

다섯째, 매체 활용을 통해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효과 이외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교육적 효과를 더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블랜디드 수업은 이미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실제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놓고 있다.

4. 맺음말

학습자가 학습 자체에 대해 가지는 부담을 덜어주며 배움이 즐겁고 흥미로운 것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양함과 변화일 것이다. 수업의 과정이 한 가지로 단순하게 지속된다면 학생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잘 혼합되기만 한다면 한 가지 방법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는 교수 공학의 원리를 잘 실현하고 있는 것이 블랜디드 수업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귀 기울여 함께 하는 수업



유 강 민

평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I. 들어가며

‘좋은 수업’은 어떤 수업일까요? 교사라면 누구나 ‘좋은 수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수업이 ‘좋은 수업’인지에 대해서는 교사마다 생각이 다르며, 나름의 방식에 따라 ‘좋은 수업’을 추구하고 있지만 과연 ‘좋은 수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료하고 객관적인 답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II. 좋은 수업을 위하여

2011학년도 유치원교사 학습활동연구대회를 준비하면서 교직생활에서의 나름의 수업설계와 수업진행을 이끌어가는 교사의 입장에서 ‘좋은 수업’이라는 명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학습활동연구대회의 영역은 자유선택활동이 주어졌습니다. 유치원에서의 자유선택활동은 유치원의 모든 활동을 대변하는 활동의 대표성을 띄는 과정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의 중요한 교육적 의미와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1. 자유선택활동의 의의

첫째, 유아기는 능동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영유아가 스스로 구체적인 사물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며 둘째, 개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개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놀이에 참여하기 때문에 교사는 유아들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개인차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인지적 경험 뿐 아니라 신체, 언어, 사회성, 정서 발달 등 모든 영역의 발달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넷째, 인간관계를 학습하는 시간으로 허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놀이를 통해 친구와 성인과의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유아들에게 기쁨을 주는 시간과 동시에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학급 전체 유아가 느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배려와 협동, 양보와 사랑을 익혀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자유선택활동은 우리의 아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진행하는 놀이를 통해 스스로 호기심을 해결하고, 경험하고, 오감을 통해 느껴보며, 자연스럽게 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학습'의 의미를 넘어 놀이감을 양보하고 친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상황을 경험하며, 사회성을 기르고, 타인을 인지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유치원의 전체적 활동을 교사 주도가 아닌 유아가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하며 마무리하여 평가하는 단계를 가지는 이상적인 학습의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2. 마음 열고 귀 기울여 주는 교사와 유아의 상호주관적 관계

'좋은 수업'은 우선적으로 교사와 유아 사이에 일어나는 활발한 상호작용을 '좋은 수업'의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직에 있는 교사라면 누구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좋은 수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교사와 유아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은 교사와 학습자가 메시지(교육내용)를 주고받는 과정이므로 주로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교사와 유아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수업의 형태를 취할 것이며, 주입식이 아닌 대화와 존중, 그리고 다른 의견의 제시, 그것에 대한 수용의 태도 등을 통해 은연중에 수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와 교사가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대화를 잘 나누는 과정이 '좋은 수업'의 조건일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유아의 반응을 잘 살피고, 유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수용하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유아의 특성상 유아는 자신이 하는 말을 누군가가 인정하고 수용한다면 신이 나서 더 많은 말을 하게 되고, 이는 수업에 대한 열정적인 참여와

성취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유아와 대화를 나눌 때 교사보다 유아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수업이 또한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이해하고 보듬는 마음 나누기 대화

교사 발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다보면 대화의 주체가 오로지 교사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특히 유치원 교사는 교사의 질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유아들이 하는 질문이며 유아들이 자신의 호기심을 질문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는 유아가 수업 내용에 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아가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으며, 이러한 유아의 행동은 교사에게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대화를 잘 나눈다는 것은 교사와 유아가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교사들은 유아와 대화에서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 수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발문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이며, 수업 중에는 유아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III. 맺으며

'귀 기울이다'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이야기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다'로 풀이되어있습니다. 유아교육은 교사와 아이들이 하나 되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생활 자체가 곧 교육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원교육은 같이 공감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생활세계에서 교사는 유아들이 이야기하는 말과 표정, 작은 몸짓도 읽어주고 귀 기울여 들어주며 고개 끄덕여 반응하는 마음이 가장 기본인 교육일 것입니다. 아이의 말을 머리로 이해하기보다 마음으로 공감하고 가슴 열어 함께 하는 수업, 이런 교사의 자세가 곧 '좋은 수업'의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

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정운영

양산 화제초등학교 교사

활용

업무 관련 활용 팁

NEIS

차세대 나이스는 기존의 교무업무시스템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통합하면서 올해 3월부터 시행되어오고 있습니다. 메뉴나 업무 흐름도는 기존의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세세한 부분에서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지만, 크게 바뀐 부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아직도 간혹 사용하는 업무에서는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저번 호에 이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면서 자주 문의해 오시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활용 팁들에 대해 나이스 시스템의 메뉴의 순서대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기준년도/학기]메뉴에서 자료오류삭제는 어떤 기능인지요?

A. 자료오류삭제는 이미 학기자료를 등록한 상태에서 학기기간을 수정할 경우 학기기간에 맞지 않는 자료를 삭제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2011학년도 1학기를 03.01~08.28로 저장했다가 학기가 03.01~08.31까지 변경되었다면 8.28부터 8.31까지 2학기로 저장된 자료(시간표, 출결 등)를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Q. 학년말이라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졸업, 진급 등 업무가 많은데 2010학년도 졸업처리도 하고, 2011학년도 교과목도 편성하려고 하는데 [기준년도/학기]에서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요?

A. 교무학년도/학기는 2010학년도 2학기, 수업학년도/학기는 2011학년도 1학기로 설정합니다.

Q. [학생자료개별삭제/졸업생자료일괄삭제]메뉴는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 건가요?

A. [학교정보]-[학생자료개별삭제/졸업생자료일괄삭제]는 교무업무시스템상에 생성된 학적정보를 완전히 삭제를 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학식에 참석하여 입학생으로 학적반영이 되어서 학적이 생성이 되었는데 3월에 본교에 입학하지 않아서 학적 자체가 없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 메뉴에서 학적정보를 삭제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처럼 학생의 학적정보가 잘못 등록되어서 완전히 삭제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메뉴에서 삭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자료개별삭제/졸업생자료일괄삭제]에서 삭제된 학생자료는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입학생으로 등록하여 해당 학생의 이전년도 자료는 학생부 정정대장을 통해 작성하고, 현재 학년자료는 현재 학년도에서 각 메뉴에서 다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 Q. 담임교사편성 메뉴에서 담임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 메뉴의 학년반이력조회 탭에서 담임선생님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A. [교육과정-담임 편성관리-담임 교사편성]메뉴에서 등록하고자 하시는 선생님 이름에 임의로 다른 선생님의 이름을 끌어다 놓으면 변경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본래의 담임으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선생님이름을 끌어다 놓고 이력추가에 체크 후 저장하시고 생활기록부 자료반영을 하면 정상적으로 등록됩니다.
- Q. 편제등록을 하고 과목개설을 하는데 겸임교사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권한등록에 서는 조회가 되어 권한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원적교에서도 겸임처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 A. 겸임 교사로 등록된 사용자를 교육과정에서 조회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관리-사용자관리-발령 전임 시교원등록]메뉴에서 겸임 교사로 등록하면 됩니다.
- Q. 편제 및 시간배당관리에서 편제 등록시 특별활동과 창의적체험활동에 대해 특별활동을 하위활동 (자치, 적응 등)으로 각각 등록만 가능하고 하위영역이 아니라 전체로 특별활동 35시간과 같이 등록은 불가능한가요 ?**
- A. 차세대나이스를 구축하면서 전국적으로 영역별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어서 현시스템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특별활동'으로 편제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치/적응/계발/행사/봉사활동으로 그리고 자율활동/진로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의 세부 영역으로 편제를 등록해야 합니다.
- Q. 1, 2학기 교과목 시수가 잘못 입력되어 시간배당관리에서 모든 과목 삭제 후 자동 등록하려 하니 담당교사 삭제 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교과개설에서 모두 삭제 한 후 다시 시작하려 해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A.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 편성을 하면 담임선생님께 과목개설이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편제 및 시간배당관리에서 편제를 삭제하시려면 기초시간표와 반별시간표에 삭제할 과목으로 등록한 시간표가 1시간도 남아 있지 않아야 합니다.
기초시간표를 깨끗하게 삭제하시고 기초시간표를 반영하여 반별시간표도 모두 삭제하신 후 담임선생님에게 편성된 개설과목을 한과목도 남지 않게 모두 삭제해야 편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Q. 결보강일지조회 상신목록에 문서가 뜨지 않습니다. 해당 일자에 결보강처리를 했는데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A. 결보강일지의 경우 일자별로 올리기 때문에 해당 일자에 다른 분이 먼저결재를 올리면 결재를 올리실 수가 없습니다.

디자인 왕국 일본에서 창의성을 배우다



구 현 숙

창원 대원초등학교 교사

1. 우리 교육에서 창의성교육 변화 요구

한국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재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한국교육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시선들이 쏠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유학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처음에는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이다가 단계가 올라갈수록 성취도가 낮아진다는 말도 많이 들린다. 우리나라가 학교 교육과정 목표를 창의적인 인간육성에 두고 개인의 문제 해결능력이나 창의성 신장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무언가 오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창의성 신장교육에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그 기본 방향으로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으로 ‘세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을 키우는데 두고 있고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학교 교육현장에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창의성의 신장을 모색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세기 세계경제는 국가 간 장벽이 없는 무한 경쟁체제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이 국가 간 경쟁에서 선두를 탈환하기 위하여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이 중요하다. 디자인 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일본, 그들의 아이디어 발상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창의성 교육을 위해 어떤 점을 벤치마킹해야 할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일본의 교육체제와 내용

일본의 학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1952년 일본 문부성으로 교육개혁이 넘어간 이후 수차례의 개혁과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6-3-3-4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의무 교육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교과목도 국어, 사회, 산수,

이과, 생활, 음악, 도화공작, 가정, 체육, 도덕, 외국어활동, 종합적인 학습시간과 함께 특별활동이 편성되어 있다. 교육과정도 기본적인 내용에는 강한 구속력을 가지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자율적인 측면이 강하다. 교과서도 문부과학성에서 심사를 거쳐 다수의 종류를 채택하고 있다. 즉, 기본적인 목차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을 학습지도 요령에서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에 따른 다양한 적용 방안이 다수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업시간에 비교적 충분한 시각적 참고 자료가 제공될 수 있어 학습의 활용도나 적용에 유리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도 2009개정교육과정부터는 다양한 검정교과서를 학교에서 채택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3. '여유와 자율'을 통한 일본의 창의성 교육

지금 일본에서는 '여유와 자율'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면서 미래 대비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지식만을 기르는 편중된 교육에서 탈피하며 아동들에게 '여유'를 갖게 하고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교육방향은, 하고 싶은 것, 신나는 것, 재미있는 것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고, 나아가 자연스럽게 집중력 향상과 활기찬 교육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생 개개인과 학교 전체의 주체성이 확립되어 자주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1994년에 월 1회의 주5일제를 도입, 1996년에는 전면적으로 주5일제를 실시했고 21세기에 대응하는 아동 생활의 기본방향을 중앙 교육심의회에서는 새롭게 제시했다고 한다. 새롭게 등장한 교육개혁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협력해 아동을 길러내야 한다는 측면을 주요 핵심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초와 기본 습득과 개성을 찾아내 스스로에게 어울리는 삶의 방법을 선택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살아가는 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화가 격심한 오늘날 '여유'와 '살아가는 힘'이라는 교육방침은 사회가 원하는 순발력 있는 상황 판단력과 구조적인 사고력을 가진 국제적인 인재 육성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고 10여 년간 지속적인 일본의 교육방침이 되고 있다고 한다. 2006년 새로운 교육기본법에 의거해 진행된 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한다.

4. 아이디어 발상 중심의 일본 창의성 교육의 실제

가.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육환경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은 창의성을 촉진시켜주는 사람의 존재, 참신성의 수용, 격려, 인정, 창의적인 행동을 하는 모델과의 접촉, 적절한 기회 등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일본 초등학교에서는 체험중심의 종합적 교육과 발상 중심의 조형 교육을 위해 ‘종합적 학습시간’ 교과와 ‘도화공작’ 교과를 위해 다양한 도구와 자료들이 마련된 제작실이 따로 구비되어 있다고 한다. 그 속에서 그리거나 만들거나 감상하거나 혹은 발표하는 등의 과정 속에서 아이디어 발상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창의성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학교 내에서 교실 환경, 수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성 교육

일본은 주5일제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1996년 이후에 가정 및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육과 가정·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 학습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화와 사회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체험하는 학습의 장을 국가와 사회가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다. 즉 지역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장, 회사 등을 견학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해 감상하고 시찰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초등학교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에서의 창의성 교육은 다양한 체험을 통한 창의성교육으로 도화공작 수업에서 제작활동이 아닌 놀이 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체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또 아이치 현에 위치한 ‘가리야 시립 히다카초등학교’는 창의성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초등학교 중의 하나인데 이 학교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난 의문점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구하거나 공작품으로 표현하는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창의성 증진을 위한 정기적인 작품전을 열어 아이디어 발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한다. 또 지역사회나 유명인사 그리고 지역사회 협조로 주요 시설물 견학이란 전시회 관람 등 일본은 다양한 체험을 위해 지역과 학교가 함께 하고 있다고 한다.

다. 조형작업을 통한 발상 교육과 표현력 향상 교육

일본의 초등학교의 도화공작이란 교과과정에서 아동의 조형 활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을 통해 일본의 창의성교육을 엿볼 수 있다.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범주의 생각과 융통성 있는 발상 과정 단계를 스스로 모색해 진행하는 조형 교육이다.

둘째, 아이디어 발상 과정을 통해 구체화된 개념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조형 교육이다.

셋째, 도전의식과 혁신적인 사고에서 출발한 역발상을 통한 창의적인 조형 교육이다.

넷째, 제작방법 과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상의 세계가 확장될 수 있는 조형 교육이다.

일본에서 도화공작 교과서는 현재 3개의 출판사에서 발행하고 있고, 각 학교는 그중

1개의 교과서를 정해 학습한다고 한다. 또 일본의 교사용 학습지도요령에 수록되어 있는 수업의 목표와 내용은 '즐거운 조형활동', '만들고 싶은 것의 표현', '자료와 장소의 특징을 고려한 표현' 등으로 자신의 생각과 재료의 활용도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라. 문제해결과정을 통한 사고력 증진 교육

미술 및 디자인에 있어서 표현의 완성도와 효용성의 측면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오히려 상상이나 역발상적인 사고가 참신하고 독창적인 사고 발달을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아동 조형 활동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와 실험은 집중력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일본의 도화교과서 속에 안내되어 제시되어 학생들이 재미있는 놀이나 게임 형식으로 진행되는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 과정을 체험하고 있다고 한다.

5. 나오며

일본이 현재와 같은 경제대국이 된 배경에는 아이디어 발상교육을 통한 디자인 강국이 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창의성 교육이 그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많은 국가들이 이미 창의성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본의 아이디어 발상교육을 엿보는 것은 우리 창의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일본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 기초 조형 교육에 해당하는 '도화공작 수업'은 아이들의 창의성을 후천적으로 더욱 향상시킬 수 있어 우리 유아·초등 디자인 교육계에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비전을 추구하는 일에는 변화는 필수적이다. 관성적으로 지켜오던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창의성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창의성교육의 선진 나라들을 벤치마킹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힘을 길러주는 방법적인 변화에 교육공동체가 가진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주5일수업제 정착을 위한 창의적 체험 활동



함 기 호

삼정자초등학교 교장

본교는 2012년부터 전면 자율 시행될 주5일수업제를 대비하여 2학기부터 주5일수업제 시범학교 운영하고 있다. 주5일수업제는 1주일의 5일은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습 활동을 전개하고 나머지 2일은 가족, 친구, 지역 사회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습 활동의 범위와 내용을 풍부히 하여 주7일 교육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본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토요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주5일수업제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 재편성·운영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저로 본교의 실태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법적 근거에 의해 연간 수업일수는 학교행사를 포함하여 1학년~6학년까지 195일 이상을 확보하였다.

- 1, 2학년 : 주당 22시간, 3, 4학년 : 주당 27시간, 5, 6학년 : 주당 30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 4~6학년은 수요일 6교시를 동아리 활동 시간으로 운영한다.
- 시간표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부족한 창의적 체험활동, 특별활동 시수는 현장체험학습, 학교 행사, 학교 특색활동 등으로 확보한다.

① 교육과정 운영 기본 계획 (2011학년도 2학기) ①

학년	수업일수	총수업시수	주당평균수업시수	수업시수조정방법
1~2학년	200	830/850 (859)	25(22)	주중수업시수 증배(1시간) 방학일수 감축(3일)
3~4학년	200	1020/1020	30(27)	
5~6학년	200	1122 1144/1122	33(30시간)	

시책	내용	기존 계획	수정 계획	비고
수업 일수 198일 이상 확보	겨울방학 기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일수 207일 ☞ 겨울방학기간 2011.12.23 ~ 2012.2.2(42일간) ☞ 봄방학기간 2012.2.17 ~ 2012.2.29(13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일수 200일 ☞ 겨울방학기간 2011.12.23 ~ 2012.1.31(40일간) ☞ 봄방학기간 2012.2.18 ~ 2012.2.29(12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학기 중 토요일수업일수 10일 ☞ 방학기간 3일 축소 → 수업일수 3일 확보

2. 학교 토요 창의적 프로그램

가. 아버지와 함께 '스포츠를 즐겨라'

2명의 스포츠 강사와 여건이 되어 희망하시는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아버지와 함께하는 스포츠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아버지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아이와 아버지의 관계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 운동장과 실외 농구장, 실내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배드민턴, 티볼, 축구, 농구, 즐넉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이 흥미롭게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 참여의 일반적인 대상은 어머니 위주이나 아버지들로 구성된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가 신설되어 아버지들의 학교 참여를 유도하였고 자연스런 정보 공유의 장이 되고 있다.

나. 가족과 함께하는 '대암산 등반' 운영

저학년 일수록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간의 사랑과 유대를 돈독하게 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에 1,2,3학년을 중심으로 9월 3일은 1학년, 9월 24일은 2학년, 10월 1일은 3학년이 가족과 함께 하는 학교에서 가까운 대암산 오르기 행사를 가졌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부모님 모두 참여하여 밀어주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산에 올랐고, 자연의 변화 모습과 자연보호 활동을 실천하면서 행사를 마쳤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바쁜 사회생활이라는 핑계로 아이들과 같이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집에서 보지 못한 활기찬 모습의 자녀들 모습이 새로웠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소감을 말하였다.

㉠ 학교 프로그램 ㉠

순	대상	영역	프로그램	활동주제	장소	지도교사
1		여가·취미활동	책과 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읽기 • 독후활동 	도서실	담당교사
2	1~6학년	스포츠 활동	스포츠를 즐겨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구 • 피구 • 농구 	운동장 및 체육관	스포츠 강사 및 아버지 도우미
3		문화·예술활동	악기와 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코더 • 단소 	음악실	담당교사

다. 책과 함께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다양한 권장 도서를 선정하였다. 아동들은 매주 학년에 맞는 권장 도서의 책을 읽은 후 독후감 쓰기, 독후 그림 그리기, 독서 골든벨 등의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하고 있다.

3.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

기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던 요리, 드럼, 로봇교실 등 20개의 강좌를 토요일 까지 확대, 운영하여 주5일수업제 운영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아동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지 않도록 하고 있다.

4. 토요 돌봄 교실 운영

본교에서는 기존에 격주로 운영되던 ‘나홀로’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토요 돌봄 교실을 전면 주5일 수업제의 실시로 매주 토요일 운영되고 있다. 돌봄 교실은 교육의 기능외에도 보육의 기능까지 더하여 놀이기, 책읽기, 만들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돌봄 교실 선생님이 지도해 나가고 있다.

5. 주5일수업제 교육의 내실화

가정체험 학습 및 토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스스로가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하여 학습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고, 학교, 가정, 사회의 공동교육체제 구축에 이바지하고,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역할이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❶ 사진으로 보는 토요프로그램 교육활동 ❶



아버지와 함께하는
스포츠 동아리



토요 방과 후 교실



토요 돌봄 교실

1인 1탐구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D·H·A 인재가 자라나요!



김 태 중
창원 봉덕초등학교 교장

1. 들어가며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성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대이다.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학습자에게 있어 단순한 시험 성적의 향상 외에 배움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본교에서는 D·H·A 봉덕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며, 이와 관련된 교육활동으로 1인 1탐구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하게 되었다.

2. 1인 1탐구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하기 위해

가. D·H·A 봉덕교육과정의 편성

우리 학교의 비전은 배우는 즐거움 속, 행복한 미래를 여는 D·H·A 봉덕교육이다. 우리 어린이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체험하며(Dream), 꿈을 이루기 위해 보다 높이 올라야 할 과정들을 실천하고(High), 서로 배려하며 함께 도울 수 있는(Aid) 창의적이고 바른 인성을 가진 D·H·A 인재들로 자라나 행복한 미래를 열기 위한 바탕을 형성하고 있다. 프로젝트 학습 역시 이러한 봉덕교육 실현을 위한 중요한 교육활동 중 하나로 전개되었다.

나. 1인 1탐구 프로젝트 학습의 선정 배경

2010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 학교공동체 공동의 요구 중 하나는 교과 학습 지도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지도 내용이 자기주도적 학습력의 신장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지금의 시대가 지향하고 있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꼭 필요한 학습력이므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최적의 교육활동으로 1인 1탐구 프로젝트 학습을 계획하게 되었다.

01



02



01 중간 전시회
02 학년 발표대회

다. 1인 1탐구 프로젝트 학습의 기반 조성

1)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 편성

보다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특별활동)으로 프로젝트 학습 시간을 10시간 편성하고, 학급당 컴퓨터실 활용 시간을 배당하여 프로젝트 학습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다.

2) 교사의 사전 연수

프로젝트 학습 지도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던 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연수를 실시하여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프로젝트 학습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 학생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 자료들을 안내하였다.

3) 프로젝트 관련 도서 구입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원활하게 프로젝트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서 구입 예산의 일부를 확보하여 학급별 프로젝트 학습 구입 도서에 대한 희망을 받아 구입·활용하게 되었다.

3. 1인 1탐구 프로젝트 학습,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가. 주제 선정

개인(모둠별)의 관심도에 따라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 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예시 자료를 많이 제시하였으며, 학년 단계별 특징에 맞추어 개인 또는 소집단의 형태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로 1~2학년은 개인별 탐구, 3~6학년은 모둠별 탐구를 계획하였으며, 모둠별 탐구에서의 참여 인원은 2명~4명 정도였다.

나. 연간 계획 수립 및 충실한 탐구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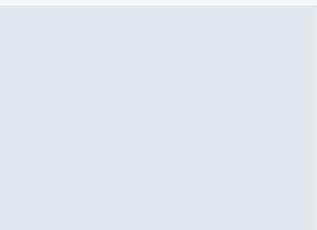
개별 주제를 선정한 후 실천 가능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편성 시간을 활용하여 탐구를 진행하고, 학기 중 미흡했던 내용은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는 주로 주제 관련 자료의 수집과 탐구 과정의 확인 등이 이루어졌으며, 올해의 여름방학은 학년별로 별다른 과제 없이 프로젝트 학습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탐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었다.

다. 중간 과정 확인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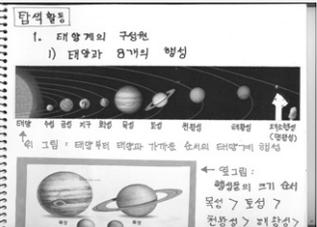
중간 전시회는 1학기 동안 진행해 온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과정을 모든 학생이 공유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학년별로 선정된 주제와 그 동안의 탐구 과정들을 연관계획서, 탐구를 진행 중인 포트폴리오 등으로 전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다른 학년, 다른 친구들의 프로젝트 학습 진행 과정을 확인하며 스스로의 탐구 의지를 북돋우고, 방학 기간을 이용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03



04



03 최종 산출물 전시회

04 프로젝트 학습 산출물

라. 학급·학년 발표대회

발표 대회는 학급 발표 대회를 거쳐 학년 발표 대회로 이어졌다. 각 학급에서는 정해진 날짜에 모든 학급의 학생들이 그동안 진행해 온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학급 대회를 통해 발표의 내용과 산출물의 내용이 가장 우수했던 2그룹이 선정되어 학년 발표 대회에 참여하였다. 학년 발표 대회는 10월 12일~13일 동안 수업 분석실에서 학년별로 정해진 시간에 실시되었으며, ppt, 차트 설명, 실물 제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마. 최종 산출물 전시회

전 학생의 노력과 열매들을 한 자리에 모아 공유할 수 있도록 최종 산출물 전시회를 열어 프로젝트 학습의 과정을 마무리하였다. 학생들의 산출물은 포트폴리오, 차트, 실물 등 여러 형태였으며 10월 14일~15일에 걸쳐 학년별 관람 시간을 정해주어,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처음 실시된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 궁금증이 많았을 학부모들을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많은 학부모들도 프로젝트 학습의 산출물을 관람할 수 있었다.

4. 1인 1탐구 프로젝트 학습, 이것을 남기다

프로젝트 학습은 학교공동체 모두에게 신선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제대로 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학년 구분에 상관 없이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관심 분야를 찾아 프로젝트 학습의 주제를 선정했고, 나름의 방법으로 다양한 결과물을 산출했다. 저학년의 경우 학부모의 부담감이 더욱 컸을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기회를 통해 자녀와 함께 자료를 수집하며, 많은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교사들은 학습자 스스로 주제를 정해 자료를 수집하고, 탐구한 결과들을 정리해보는 학습 경험이 성장의 큰 바탕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학생들 역시 친구들과 혹은 내가 스스로 탐구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뿌듯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올해 우리학교의 프로젝트 학습은 성공했다. 자기주도적 학습력에 대한 성취 정도를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 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것을 좀더 심도 있게 탐구하고, 스스로 학습하며, 배우는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다.



이 미 영

함양 서상초등학교 교사

‘국내 1호 학교단위 자율 영어영재반을 소개합니다.’ 글로벌 창의인재를 꿈꾸는 서상초 영어영재반



01



02



03

01 2차 통합지필 평가 실시 장면

02 영어영재반 심층면접 장면

03 영어영재반 여름방학 캠프

I. 이렇게 시작했어요

본교는 2009년 교과부 지정 전원학교로 선정되어 ‘친환경·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학생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2010년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선진형 학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서부 경남 최북단 덕유산 자락에 위치한 시골의 소규모 학교이다.

학교 특성화 교육으로 지난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량활동 연극과 2010년에 결성된 골프, 그리고 연중 생태 체험 및 문화·예술 체험 학습, 다양한 방과후 활동 등 내실 있고 차별화된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본교 학생들은 어느 도시학생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실력과 자신감, 그리고 자기 표현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단 한 가지! 영어에서만큼은 도시학생들에 비해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이유를 ‘절대적 영어 노출 시간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었다.

본교의 지리적 특성상, 이곳에는 사설 학원이 없고 그 흔한 학습지 과외도 교통상의 이유로 쉽게 접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의 거의 모든 학습활동이 학교의 정규수업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영어과에서만큼은 학교 정규수업 시간만으로 영어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기에 부족함이 있음을 느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학교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영어영재반’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켜 미래사회의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심의를 거쳐 2011년 3월에 ‘서상초 영어영재반’을 개설 및 운영하게 되었다.

II. 이렇게 선발했어요

선발 대상은 본교 4,5,6학년 재학생 중 영어에 흥미와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절차는 전체 3단계로써 1단계는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단계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 통합지필평가’, 마지막으로 ‘심층구

술면접' 단계를 거쳐, 영어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2명의 영재교육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였다.

선발 과정 및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특히 3차 심층구술면접단계에서는 학운위 및 학부모회 임원들의 자율참관을 통해 선발 과정을 공개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III.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서상초 영어영재반 운영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영어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영재교육을 제공함이며, 다른 하나는 영재반 이외의 일반 학생들도 영재반 활동의 참관을 통해 영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간접적인 파급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서상초 영어영재반은 주 1회 1시간의 방과후 활동으로, 원어민 교사 및 전담교사의 협력 수업을 통해 속진과 심화를 병행한 '의사소통중심의 신나고 즐거운 영어 학습' 및 '대의 영어말하기대회 참가'를 주요 활동으로 계획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월	주 제	주요 학습 내용	대회 및 행사 관련
4	•Orientation •What did you do? •What do you want to be?	•Orientation & Greeting •Talking about various jobs •Talking about what do you want to be	- 대외영어말하기대회 준비
5	•I broke my leg •I usually get up at 7	•Talking about how you feel •Giving suggestions to the symptoms •Talking about daily routines •Talking about time tables	- 대한민국학생영어말하기 대회 참가(서울)
6	•It is famous for shopping •How do I get there?	•Talking about where you will go •Talking about famous places you visited •Asking for directions •Asking for the traveling time and fare	- 미국리더십캠프 참가 아동 영어말하기원고 준비 및 연습
7	•Actually, I am upset •I always surf the internet	•Expressing how you feel •Describing what happened to you during the trip •Talking about the frequency of certain action •Talking about what you use the internet for	- 교내영어말하기대회 연습 - 여름방학 영어캠프 준비
8	•Summer English Camp	•Arts from around the world for 5 days •Sports from around the world for 5 days •Experiencing subway & restaurant	- 여름방학 집중영어캠프 - 교내영어말하기대회 1차
9	•I am a big fan of soccer •I like a sci-fi movie	•Talking about favorite sports •Talking about favorite teams and players •Talking about favorite kinds of movies •Talking about the movie you saw	- 뉴질랜드 펜팔 활동 계속
10	•He is the most famous star •What do you do on Thanksgiving?	•Talking about favorite entertainers •Talking about the movie you saw •Describing things you do on holidays	- 경남어린이화예술회 영어 말하기대회 준비 및 연습
11	•I like classical music •I admire him so much	•Asking about favorite kinds of music •Experiencing various performances •The person who I admire most	- 교내영어말하기대회 2차
12	•Global Warming •We should protect the environment	•Talking about climate change •Talking about global warming •Talking about how to protect the environment	- 대외영어말하기대회 참가계획
1~2	•Winter English Camp •Competition	•Experiencing folk dances •Various traditional cultures •Competition	- 겨울방학 집중영어캠프



04 영어영재반 여름방학 캠프
05 영어영재반 학생들
06 펜팔 편지를 받고 기뻐하는 영재반 친구들

IV. 이런 일을 했어요

외국어 분야의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개설된 <서상초 영어영재반>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개설된 자율 영어영재 학급으로서, 이에 대한 많은 언론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1. 대한민국 홍보사절단원으로 미국을 가다

지난 5월 28일, 서울 상명대학교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 16회 대한민국 학생 영어말하기 대회'에 본교 영어영재반의 김미소(4)·유재훈(5)·한은비(6)학생이 참가하여, 김미소·유재훈 학생은 최우수상을, 한은비 학생은 최고상을 수상하여 세 학생 모두 대한민국 홍보사절단원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

특히 한은비 학생은 92.33의 높은 평점을 받아 전체 3위에 입상하였다.

유재훈·한은비 학생은 지난 8월 17일~24일, 미국으로 'Global Leadership Camp'를 다녀왔다.

2. KBS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되다

지난 8월 10일, KBS 1TV '행복한 교실' 프로그램에 본교의 '명품 공교육, 서상초등학교'가 방송되었다. 전원학교로서의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특성화 교육인 '연극·골프·영어' 활동이 소개되었으며, 특히 본 방송에 한은비 학생이 직접 출연하여 영어영재반 활동 소감과 영어말하기 실력을 한껏 발휘하여, 서상초 영어영재반을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하였다.

3. 영어영재반 여름방학 영어집중캠프 실시

지난 8월 8일~12일까지 5일 동안, '영어영재반 여름방학 영어집중캠프'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영어에 장기간 노출될 경험을 제공하고자 2명의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였으며, '세계의 스포츠, 예술 활동, 음식 문화' 등의 다양한 주제로 활동 중심의 영어 몰입식 수업 방식을 통해, 학생들은 영어와 영미문화에 대해 즐겁고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4. 펜팔로 사귀 뉴질랜드 친구들

영어영재반 학생들은 본교 원어민 교사 Perelini(여, 뉴질랜드)의 소개로 올해 5월부터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Aranui Primary School의 6학년 학생들과 펜팔 활동을 하고 있다.

처음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어로 편지를 써야한다는 부담감이 앞서 어려웠으나, 친절한 원어민 교사의 지도와 번역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학생 스스로 영

07



08



09



07 대한민국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장 앞에서

08 KBS행복한 교실 녹화 장면

09 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 참가 발표중
(한은비)

어표현을 찾아 익혀가며, 영어 편지를 작성할 수 있었다.

현재 월 1회 가량의 펜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영재반 학생 및 학부모들의 관심과 만족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V. 이렇게 기대할 수 있어요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시작했던 영어영재반 운영도 벌써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영어영재반 운영에 대한 실질적 도움 자료와 경험 부족으로 인해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를 밑거름 삼아 향후에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한다.

첫째, 영재반 수업 시간의 확대를 요구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방과후 시간을 더 확보할 계획 중이다.

둘째, 학생 개인별 연구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산출물 발표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즐겁고 신나는 활동 중심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조사·발굴하여 본교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교내 영어말하기대회의 활성화를 통해 영어사용능력을 향상시켜, 영재반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도 대외 영어말하기대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규영어 교과시간에도 영재교육의 방향성을 갖고 임할 계획이다.



- 10 홍보기세(경남도민일보)
- 11 홍보기세(경남신문)
- 12 홍보기세(주간 함양)

자연과 하나 되어 놀며, 꿈꾸며



김삼예
남해유치원 원장



1. 지역 거점 명품 유치원

망운산 나무들이 일제히 가지개를 켜고 유치원 뒷뜰 야생화 꽃들이 청명한 햇빛을 받아 아침이슬이 잠을 깰 시간이 되면 남해 유치원 꿈둥이들이 한명, 두명 유치원으로 모여든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즐거운 유치원’ 99명의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가꾸며 생활하는 곳, 남해의 유일무이한 공립단설 남해유치원!!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은 자연친화적인 유치원 실내·외 환경은 아이들에게 사시사철 계절의 아름다움을 주고 있으며, 내 아이처럼 사랑 가득 담아 생태 교육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의 밝은 모습은 자연과 닮아 평안함을 주고 있고, 나 또한 자연과 어우러지는 지역 거점 명품 유치원을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유치원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예코’ 생태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무한한 호기심을 자극시켜 ‘창의적인 열린 사고를 가진 어린이’ 성장에 교육 목표를 두고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생태교육 프로그램 활동 중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가. 남해 유치원 교원 자연 생태 연구회

우리 유치원 교원들을 중심으로 「남해지역 자연 생태 교원 연구회」를 조직하여 꾸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태 활동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태 활동 프로그램’을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연 훼손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 관계에 대하여 교원 심화 연수를 월 6회 3년 차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나. 풀벌레와 친구 되다

풀벌레 소리가 유난히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하는 8월 말 우리 유치원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생태 체험’ 활동을 하였다. 활동 주제는 ‘풀벌레 친구 되기’로 정하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름 풀벌레와 놀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팟방울을 조롱조롱 달고 부모님과 함께 매미, 사마귀, 메뚜기, 잠자리를 관찰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매우 진지하였으며, 요술안경과 망원경을 통하여 본 곤충의 세계는 아이들이 곤충이 되고, 곤충이 아이들이 되는 자연 축제 프로그램이 되었다. 남해유치원 온 가족이 자연과 하나되어 보는 교육활동을 영상으로 담아 교육뉴스에 방영하여 아이들의 소중한 체험을 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추억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다. 나뭇잎을 바람에 날리다

유치원 앞 남산공원과 망운산이 가을을 맞이하여 형형색색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는 요즘 아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색을 찾아 떠난다. 다양한 모양의 나뭇잎을 관찰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의 나뭇잎을 찾아 ‘왜! 낙엽이 떨어질까?’라는 의문점을 시작으로 숲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에 대하여 아이들 나름대로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입으로 불어 나뭇잎 멀리 날려보기, 나뭇잎 플라쥬 활동은 자연 숲이 아이들에게 주는 더 없이 좋은 교육환경이 된다.

2. 행복한 꿈이 영글어 가길.

우리 유치원 자연 생태 교육 활동으로 나무, 풀, 꽃, 벌레 이야기로 유치원 교실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생태활동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의 기다림과 “원장선생님 이게 무슨 벌레예요?” 씩 웃고 질문하는 초롱한 눈망울에서 꼬마 자연 과학자의 무한한 꿈을 읽는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꿈이 남해유치원에서 영글어 가기를 소망해 본다.



학교 역사유물관을 통한 명품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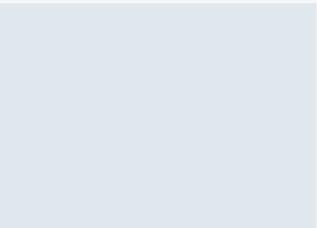


변 광 기

창원중학교 교사



01



02

우리나라 사람들의 박물관 출입은 학창시절의 단체관람을 포함해서 한두 번이 고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 한 번 가서 다 보고 왔다고, 더 볼 것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선사시대 돌칼에서 조선시대 백자 항아리까지 다 보고 나와서 이 땅의 5천년 문화를 모두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61년의 짧지 않은 역사를 간직한 저희 학교가 창원에서는 가장 역사와 전통이 깊은 중학교란 사실이 자부심으로 그리고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2002년 학교를 이전하면서부터 학교 중앙 현관에 유물관을 설게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황종호 전 교장선생님과 유물을 구하기 위해 경주와 진주를 위시한 경상도 전역과 멀리 충청도와 전라도 심지어 서울까지 오로지 학생들의 교육과 정서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찾아보자는 일념으로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렇게 발품으로 모은 자료와 주변 조력자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유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국사교과서에 나오는 선사시대의 돌칼, 방추차에서부터 활(각궁)과 화살, 백제, 신라, 가야의 유물들 그리고 고려청자와 팔만대장경, 조선시대 백자 항아리까지 진품과 이미테이션을 포함한 120여 점의 유물들입니다.

이중에서 특히 고려청자는 은은하면서 맑고 명랑한 비색, 조각도의 힘찬 선을 지닌 기물과 일치된 상감문양, 우아하고 유려한 선의 흐름을 지닌 형태, 세계 최초로 도자기에 산화동(酸化銅)으로 선홍(鮮紅)의 발색을 성공시킨 기술적 우수성 등이 그 특색이자 아름다움이며 자연의 향취를 언제나 지니고 있는 유물이기에 이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가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14C 후반 목화의 전래이후 우리나라 사대부를 비롯한 일반인들이 즐겨 입은 흰옷과 유하이 전래되면서 검소·질박·결백함을 추구하게 되어 백색을 선호하게 되면서 비롯된 백자는 청순함과 결백함이 양반들의 취향과 맞아져 탄생한 조선시대 대표 유물로서 검소하고 질박한 우리조상들의 평범한 모습이며 그러

01 유물관

02 월별계기교육실시
(역사왜곡자료전시회)

한 평범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가지게 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유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학교 유물관에 구비되어 있는 전시 유물 하나하나는 나름의 교육적 의미를 지닌 우리 선조들의 우수성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자료들이라 자부합니다.

지금도 유물관에 자료를 보충해 가는 과정에 있으며, 우리 학교가 위치한 곳이 옛 가야 영토라는 지역적인 특색을 고려하여 가야의 토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김해 대성동 고분 박물관과 몇 분 교수님들의 조언을 얻어 ‘되살린 가야인’이라는 제목으로 가야인의 유골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한 렌트콜라(입체 사진)를 유물관에 설치함으로써 당 시대인의 모습을 학생들 스스로가 탐구해보도록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E. H. 카는 ‘역사는 언제나 미래를 지향하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특색있는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과거와 대화할 수 있는 실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는 올바른 삶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교육해 왔으며, 이런 역사교육의 실천을 통해 대내외적인 많은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역사탐구반은 전국역사교사모임에서 주관한 <즐거운 역사 만들기 대회>에 참가하여 경남예선에서 대상을, 전국대회에선 태백상을 수상하였고, 2005년엔 유물관조성을 통한 특색있는 역사교육으로 학교가 교육감 표창을 수상했으며, 2006년부터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 경남시험장으로 우리학교가 선정됨으로써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에서 그동안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방과후학교로 한국사능력검정 시험반을 개설해 전국 2위의 성과를 올려 차관급인 국사편찬위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학교가 역사교육 명문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성과들의 바탕에는 역사유물관의 숨은 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현관에 위치한 역사유물관이 교육과 연계되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학교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모두 감탄하고 즐거워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 역사유물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역사교육은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을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공교육의 신뢰구축에도 기여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점들이 학교의 가치를 높이는 보이지 않는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명문 사학으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은 역사유물관을 통해 조상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생생히 체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형성된 역사의식을 내면화하여 정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유물을 보면서 체득하는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통의 문화를 몸에 익힌다면 장차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 성장에 역사유물관은 더 없이 좋은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유물관을 기반으로 한 그동안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전시하여 학생들이 양질의 역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영어전용 교실처럼 독립된 역사전용교실을 만들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역사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판단됩니다.

끝으로, 유물관 앞에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답소 나누는 순수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케네디 묘소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역사의 숨결을 학교 같은 일상 공간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때 비로소 아이들의 마음속에 애교심도 애항심도 애국심도 생겨나는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토대를 마련해주는 올바른 역사교육이 야말로 참된 학교 교육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 올립니다.





조선일보 특별기획 중국 속의 한민족사 탐방이 남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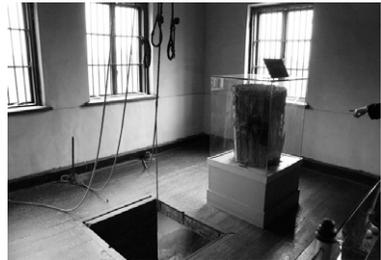


장 현 재
남해초등학교 교사

한 해를 두 달 남긴 올 해는 많은 사연을 남기고 있다. 내게 있어 그 중심에 담긴 사연은 일본 지진으로 말미암아 일본 속의 한민족사 탐방이 중국 속의 한민족사 탐방으로 바뀌어 참가하게 된 것이다.

지난 칠월 중순, 5박 6일간의 일정 속에 2만 6천km를 이동하면서 실시된 이 탐방행사는 나라의 정체성과 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해 주었다. 무엇보다도 가슴에 와 닿은 것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지구촌의 현실과 분단의 아픔속에 회복되지 못하는 옛 고구려 역사 그리고 베일을 감춘 중국의 동북공정 본색이었다.

첫날, 국토의 대역사 현장인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도착한 중국의 대련시, 변방에서 국제무역도시로 발전하는 모습은 중국의 저력을 느끼게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러일전쟁의 상흔이 남은 뤼순의 203고지와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뤼순감옥은 내리는 비와 함께 가슴에



도 피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아직도 찾지 못한 안의사의 시신은 어느 아파트촌 지하에 잠들어 있는지 대한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가슴을 쥐어짜게 하였다. 셋째 날, 긴 이동을 거쳐 도착한 단둥시. 이념의 대립속에 분단의 아픔은 압록강을 찻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다음날, 옛 고구려의 영화와 요동과 만주벌판을 호령한 강대한 제국의 수도인 고구려 국내성에 흠어진 그 기록들! 우리의 역사이면서도 주인이 되지 못한 현실은 그 한을 더 깊게 하였다. 국내성 성벽을 뜯어 건축자재로 사용한 무지몽매한 중국인들, 고구려의 역사도 변방

민족의 한 이야기로 만들어 자기네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의 배일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쉬움뿐이었다. 그저 허물어져가는 광개토대왕의 무덤만 개망초꽃 사이에서 바라볼 뿐이었다. 아쉬움! 그 한을 더 깊게 한 곳은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천지였다. 원시림과 무수한 야생화에 뒤덮은 백두산. 중국인들은 그들의 성지중 하나라 하며 장백산이라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백두산이다. 칠월이지만 고산지역이어서 서늘함을 느끼게 하는 곳. 일년 중 열흘만 볼 수 있는 곳이 천지라 하는데 바람이 간절했는지 푸른 하늘과 넓은 우주를 담은 천지는 환희와 함께 아픈 긴 여운을 차가운 바람으로 가슴의 화폭을 칠하게 하였다. '회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처럼 아픔을 즐기는 것이 더 사치가 아닐까 하는 회환을 갖게 하였다.

다섯째 날, 천지를 뒤로 반나절을 넘게 달려 도착한 중국 동북 3성의 중심도시의 하나인 심양에서 느끼는 병자호란의 의미와 삼학사의 절개가 또 한 번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의미를 던져 주었다. 조선 인조의 삼전도의 치욕과 불모로 간 왕자들. 그 한은 이 곳에서 조차 비로 내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양은 9.18기념관을 통해 일본에 당한 치욕을 잊지 말자는 의지가 베인 곳이었다.

5박 6일의 일정동안 고뇌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역할이었다. 이 사업을 실시한 의미도 정말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이 교육이며 그 선두에 있는 사람이 바로 교사란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일제와 열강의 침략기인 구한말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하루도 중국산 없이 생활하기 힘들고 전 세계는 금융위기에 몰려 선진국이라 하여도 언제 추락할지 모른다. 그야말로 총성없는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세계적인 생존의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교육을 통한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두뇌혁명으로 세계와 우주를 주름잡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소임을 맞은 사람이 바로 교육자란 것을 알며 그 책무성에 고개를 숙였다.

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화 속에 물거품이 될 것이다.



칭찬의 힘



서 광 미

창원 안골포초등학교 교사

세기의 갑부인 존 록펠러에게는 베드포드라는 사업동료가 있었다. 한 번은 그가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히게 되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무척 화를 냈겠지만 베드포드가 최선을 다한 것을 알고 있던 록펠러는 고심 끝에 오히려 칭찬할 만한 일을 찾아내었다. 베드포드가 애쓴 덕에 투자액의 절반 정도를 회수하자 록펠러는 그만큼이라도 회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베드포드의 탁월한 능력 덕분이라며 칭찬해 주었다.

내가 매일 교실에서 대하는 학생들은 한창 자라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영양소가 필요한 것처럼 마음을 살찌워 줄 수 있는 적절한 칭찬도 필요하다.

아이들의 반응은 즉각적이다. 내가 바빠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못 쏟고 칭찬이 부족했던 날은 웬지 나와 아이들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느껴진다. 반대로 관심과 함께 칭찬의 말을 듬뿍 해준 날은 싱싱한 꽃들처럼 아이들의 표정이 한결 밝다.

우리 반의 한 학생은 학기 초 낮을 많이 가리고 수줍은 성격으로 발표를 할 때마다 꿀떡은 방어기가 되곤 했다. 일기도 너무 잘 쓰고 성적도 좋은데 발표만 하면 말이 없어 내 가슴을 애타우곤 했다.

그래서 집에서는 소리 내어 책을 읽도록 하고 발표를 할 때마다 처음에는 말을 안 해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해 주고, 조금씩 작은 목소리로나마 발표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이들과 박수도 쳐주고 칭찬을 듬뿍들게 안겨줬다. 지금은 발표도 하고 음악 시간에는 손을 들어 노래도 부르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

칭찬은 정말 돈이 들지 않고 어렵지 않으면서 더불어 교육적 효과까지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단지 우리가 잘 알면서도 실천이 어려운 것뿐이다.

다음의 칭찬 7계명을 잘 실천한다면 아이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 칭찬 7계명 ◎

1.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하자.
2.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자.
3.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자.
4.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자.
5. 거짓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칭찬하자.
6. 긍정적인 눈으로 칭찬할 점을 찾자.
7. 학생이 힘들어 할 때 더욱 격려하자.





우리가족의 행복찾기

- 「행복 연습」을 읽고 -



추 필 식

대청초등학교 1-6 추성민 아버지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서 팔아이 성민이와 시원한 곳을 찾던 중, 집과 가까운 아울렛 매장내의 도서관을 떠 울리며 성민의 손을 잡고 발걸음은 이내 도서관을 향하고 있었다. 아나나 다를까 도서관은 시원하고 아늑했지만 웬일인지 사람들은 많이 없었고 조용하기만 하였다. 느긋하게 무얼 읽을까 책을 고르던 중에 노란 표지의 '행복연습'이란 제목의 책을 발견하고 무심코 집어 들어 첫 페이지를 읽어보고는 더 이상 책을 고르지 않고 읽어 내려갔다.

이 책은 창작 동화를 쓰시는 이은재 선생님이 쓰신 동화책으로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모든 연령대가 읽을 수 있는 가슴 따뜻한 동화책으로 세편의 움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된 동화책이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자폐증인 언니와 함께 살아가는 예담이의 이야기이다. 자폐증인 예담이는 예담이의 언니로 늘 말썽을 일으킨다. 예담이의 일기장을 찢어 놓기도 하고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고집을 피우기도 하는 언니, 하지만 엄마 아빠는 늘 언니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예담이는 소외감마저 느끼고 언니를 가족의 불행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가게 된 예담이는 언니의 고집에 못 이겨 시골 장터에 가게 되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골 장터에서 찌뽕을 본 언니는 찌뽕에 집착하게 되고 자리를 뜨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게 된다. 그런 언니를 보고 예담이는 언니를 버려두고 혼자 집으로 오게 된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를 만나게 되고 놀란 엄마와 함께 언니를 찾아 시골 장터로 오지만 언니는 보이지 않는다. 비오는 장터에서 언니를 찾아 헤매다가 나무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는 언니를 보게 되는 예담이. 언니의 꼭 잡은 손에는 예담이를 주기 위해 눌러진 찌뽕이 있었다. 예담이는 이후 자폐아를 돌보는 성당에 봉사활동을 가게 되고 거기서 장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수녀님을 만나게 된다. 수녀님은 장애 아이들을

‘행복의 씨앗’으로 생각하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데는 행복연습이 필요하다며 날마다 사랑한다 말해주고, 눈을 들여다봐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려는 말씀을 해 주신다.

이제 예답이는 언니가 ‘불행의 씨앗’이 아닌 행복의 씨앗으로 생각하게 되고 ‘언니야 사랑해’라며 행복 연습을 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나머지 두 편도 행복 연습을 통해 행복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난 한참을 멍하니 생각에 잠기게 됐다.

‘40여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라 생각 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면 행복해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살진 않았을까?’ 아마도 난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행복을 찾기 위한 연습은 평생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갔을 것 같다.

이 책에서 우리가 찾는 행복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똑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든 연습을 해서 그것을 끌어내기만 하면 행복할 수가 있다고 한다.

‘모든 조건이 제대로 갖춰지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행복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예요. 지금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영원히 행복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행복은 돈이나 권력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라는 어느 장애아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란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우리 마음속에는 행복과 불행이 빈반씩 똑같이 들어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많이 끌어내는가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 행복 연습이 잘된 사람은 행복을 끌어내고, 반대인 사람은 불행을 끌어낼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 가족은 행복을 찾기 위해 어떤 연습을 해 볼까?’라며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가족에게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아끼지 않고 내 마음속의 행복의 씨앗을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내 주위의 사람에게 ‘고맙다, 오늘도 수고했다’ 등 따뜻한 말 한마디로 행복의 씨앗을 이곳에 널리 퍼뜨려 행복 찾기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찬 행복한 학교,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래본다.



한·일 어린이 자연환경학습을 다녀와서



김도훈

도월 초등학교 6-3반 김도훈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한일 어린이 자연환경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선생님의 추천을 받았을 때 나는 갯벌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고 자연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되어 매우 기뻐했다. 전라남도에서 일본친구도 만나고 생태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누가 가지 않겠는가! 이러한 이유로 전라남도에 다녀왔다.

첫째 날 10시까지 경상남도 아이들이 도청에 모였다. 우리를 3일간의 여정동안 인도해 주실 도청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과 통역사 선생님, 학교 선생님 총 3분을 뵙고 우리를 전라남도로 데려가주실 기사님의 소개를 끝으로 출발을 했다.

우리는 1시 30분 경에 점심을 먹고 2시에 순천만 생태공원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순천만을 구경할 수 있는 갈대열차를 타고 순천만을 돌았다. 갈대열차는 40분 간 순천만을 돈다. 그다음 우리는 일본친구들을 만나러 자연생태관으로 갔다. 그곳에서 일본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안에 들어가서 순천만과 갯벌에 대한 동영상을 봤다. 그 뒤 엘도라도 리조트로 이동을 하였다. 엘도라도 리조트의 연회장으로 들어가니 기념 T-셔츠를 주었다. 그것으로 갈아입고 연회장으로 들어가서 각 시·도·군별로 인사를 한 뒤에 전라남도 전통공연 구경을 하고 음식을 먹었다. 그 다음 숙소에 들어간 뒤에 다음날을 기약하며 잠을 잤다.

둘째 날 8시에 아침을 먹고 9시에 신안갯벌센터에서 선생님께 갯벌에 관하여 들으면서 신안갯벌센터를 관람하고 3층에서 백합초를 만들었다. 조개 껍데기에 그림을 그리고 모래와 작은 소리로 꾸며 심지를 붙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백합초를 만들고 나서 아이들은 갯벌체험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타고 갯벌로 향했다. 우리가 갯벌을 한번 밟으면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갯벌이 원상복귀가 될 수 있을까? 자그마치 3년이라는 세월동안 손도 되지

않은 채로 뒤야지 복귀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짱뚱어 다리로 가서 갯벌체험을 했다. 원래는 갯벌에 들어갈 수 없으나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서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일자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며칠 전에 행사가 있어서 갯벌 체험을 할 수 있게 구역을 정해줬다고 한다. 우리는 그곳으로 갔다. 선생님은 무릎 밑으로 빠진다고 하셨지만 우리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무릎보다 위까지 빠져들어가니 발을 들어올리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갯벌에 한번 빠지고 나서부터는 더러워져도 된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과감하게 움직였다. 그러니 좀 더 편했던 것 같았다. 잠시 5분간의 휴식시간 동안에 게를 잡았다. 짱뚱어도 잡으려 했지만 짱뚱어는 너무 빨라서 잡지를 못했다. 그다음에 나는 옷이 더러워서 물로 씻었다. 그 전에는 리조트에 간다고 해서 물로 씻었는데 갑자기 음식점으로 갔다. 음식은 맛이 있었으나 너무 추웠다. 바닷바람 때문에 더 추웠던 것 같다. 그다음에는 천일염을 체험하려고 염전으로 갔다. 우리는 직접 천일염을 모은 후에 소금 박물관을 둘러보고 리조트로 돌아왔다. 1시간의 휴식 후에 각 시·도·현을 대표하여 여러 명의 어린이들이 환경보호활동 발표를 했다. 그 다음에는 체험 후 우리의 의견과 가장 생각에 남는 그림과 제목을 쓰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 우리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숙소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모았던 천일염을 1kg씩 나눠 받았다.

셋째날은 아침식사를 제외하고는 일정이 잡혀있지 않았다. 아침식사 후에 각 시·도·군 별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버스에 탔다. 얼마 후 도청에 도착하여 해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며 이와 같은 경험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이번 행사는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참가하고 싶고, 이런 좋은 행사를 만들어 주신 분들과 추천해주신 선생님께 감사 드린다.



법정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들'을 읽고



최복순

김해 관동중학교(경상남도학생교육원 파견교사)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산(山) 생활이다.

하루 중 제일 좋은 때가 바로 이 시간. 아침체조를 마치고 식사 전까지의 여섯 시에서 일곱시 사이, 간혹 차진을 챙겨들고 밖으로 나가 멀리 자굴산 등성과 그 위로 유유히 지나는 구름들을 보면서 나무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기도 한다.

우리 교육원(경남학생교육원)에는 교사문고가 있다. 의령도서관과 협약을 하여 한 달에 200권 씩 도서를 대출받아 교육원 문고를 채운다. 그 덕에 아이들이 없는 비수기에는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어 행복하다.

법정 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들'을 읽은 이후, 그 책 속에 소개되어 있는 주옥같은 작품들을 찾아 읽고 있다. 오늘 아침에는 헬렌 니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를 다시 펼쳐 읽는다. 이 책은 몇 년 전에 읽은 책인데, 누군가의 또 다른 시선과 관점으로 추천해 놓은 글을 읽는 일이라 다시금 새롭다.

헬렌 니어링의 글을 읽고 난 뒤부터 나의 미래 삶의 조감도는 항상 그들 부부가 살았던 모습으로 귀착이 된다.

"두 개성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결합과 같다. 반응이 이루어지면 둘은 변화한다."는 용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았다고 헬렌은 스콧과 함께 한 삶에 대해 술회하고 있다.

헬렌과 스콧이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 버몬트 숲에서 사탕농장을 꾸리며 살게 된 것은 생계를 꾸리면서도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기 위한 그들만의 생활 방식을 찾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땅과 그 위의 모든 존재들과 조화를 이룬 삶을 살고자 하였다. 그것은 자신의 이마에 땀을 흘려 생계를 꾸리고, 고용주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은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스스로 먹을 양식을 기르고, 살 집을 지으며, 필요한 나무를 베고, 자신의 생활 수단을 제 손으로 마련한 것이다. 그들은 필요 이상의 돈을 벌지 않고, 물건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남는 시간에는 글을 읽고 연구하고 대화하며 악기를 연주하고 여행하는 등 여가 생활을 즐겼다.

헬렌은 "최선의 삶이란 어떤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말한다. 그들의 삶의 과정은 무엇을 얻고 쟁취해 가는 과정이 아닌 사랑을 키우고 자신의 마음을 키워 가는 과정이었다. 헬렌은 철두철미해 보이기만 하던 사회주

의자 스콧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켰고, 스콧은 헬렌에게 올바른 삶의 기준을 보여 주었다. 서로에게 늘 무언가를 가져다주었으며, 다양한 흥미 분야들을 서로 나누었고, 그럼으로써 따로 떨어져 있던 관심사들이 공통의 관심사가 되었다. 끊임없는 토론과 동료애로서의 특유한 개성을 깊이 이해했으며 나란히, 따뜻하고 충족된 삶 속으로 성장해 갔던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꿈꾸었던 이상적인 부부로서의 동반관계의 전형이었다. 덜 갖되 충실한 삶을 택한 니어링 부부는 삶, 사랑, 죽음이 결국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말해준다. 나는, 삶에서 추구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경쟁하고 의존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기만하고 다치게 하는 현대사회의 메카니즘에 거부감이 있었다. 사회가 부추기는 경쟁의 대열에 합류하여 돈 벌어 허겁지겁 살아내는 데만 골몰할 수밖에 없는 부부관계가 어찌 원만할 수만 있을까? 수없이 반복되는 부정과 갈등 그리고 애정 없는 몸 부딪침. 서로에게 원하기만 하다가 결국은 충족되지 못하는 정신적 고통을 물질적인 보상으로 치유받고 싶어 하는 우리네 삶의 단면을 볼 때 이들처럼 이라면 인간으로서도 부부로서도 최상의 삶이 아닐까 싶다.

스콧은 “지구는 어마어마한 생명체를 안고 있는 먼지 알갱이이자, 전체로 하나인 의식체이다. 인류의 역할은 많은 적든 완전히 그르쳐졌다. 우리는 공을 놓치고 있다. 시간을 짊어짐을 낭비하고 있다. 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깊은 의식과 넓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헬렌은 그의 사후에 “결혼 생활은 결코 그 사랑의 본질이 아닌 듯합니다. 우리는 관심과 목표와 행동이 일치하는 두 사람으로서 함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좋아하면서 또한 함께 해온 많은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지적이고 훈련된 당신의 소양은 나보다 훨씬 위었고, 기술은 더 뛰어났으며, 경험도 더 넓었지만 우리는 서로 만나서 당신이 나의 부족한 능력을 뛰어넘도록 이끌어 준 이해와 협력의 바탕위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비로운 작용으로 평등하게 되었고, 하나로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당신에게 최상의 찬사를 보냅니다.”라는 편지를 적어 스콧을 추억하면서 하늘로 보내는 우체통에 넣었다.

함께 하는 시간들은 서로에게 충실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한 사람의 사후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를 기억하면서 평온한 감정으로 함께 해온 날들에 대해 찬사를 보낼 수 있는 부부가 과연 몇이나 될까? 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지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된다.

나도 언젠가는 그들처럼 ‘땅에 뿌리박은 삶’을 살고 싶다.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실천 없는 삶은 무기력하고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부부였다. 그들은 많은 물건이 없어도 풍요로운 삶을 누렸고, 한낮에 쏟아지는 충분한 햇빛만으로도 그들의 영혼은 충분히 무르익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되 거기 휩쓸리지 않았다.

법정 스님의 글 다음으로 좋아하는 헬렌의 글들을 나는 늘 가까이 두고 읽는다. 누군가의 영혼에 감화를 주는 글을 쓸 수 있는 이들에게 늘 감사한다.

법정 스님이 새삼스럽고 아쉬워진다.

헬렌의 남은 삶도 평온하고 충만하기를.

작품명 : 지구를 지켜라



신 광 수

- 헝진동초등학교 근무 교사
- 불꽃낙화 사진 촬영대회 은상
- 대한민국공중생태체 협전 사진전 참가,
- 2006, 서울 코엑스 제1회 선생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사진공모전 참가
- 제 어린이 디카교실, 일공육사, 2008

책 읽는 도민 희망찬 경남교육

도민 여러분!

오늘은 TV를 잠시 끄고
가족 독서 시간을
가져 보는건 어떨까요?



- 책 속에 꿈 책 너머 희망
- 북(book)적 북(book)적! 경상남도
- 함께하는 책 읽기 함께어는 희망경남
- 펼쳐요! 책속 행복 누려요! 행복 경남
- 책 읽는 기쁨 나누는 행복
- 책을 내걸에 미래를 내품에

경남교육청 독서 홈페이지 및 SNS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경남교육청 독서 홈페이지 '책 읽는 경남'
▶ <http://reading.gne.go.kr/>
- 책 읽는 경남 facebook 계정
▶ <http://www.facebook.com/gnedu>
- 책 읽는 경남 twitter 계정
▶ <http://twitter.com/gnreading>